



희망리포트

2016-0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사업결과보고서

이관후·황현숙



희망리포트

2016-0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사업결과보고서

이관후 · 황현숙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사업결과보고서

연구책임 이관후 (연구자문위원 | rainer2134@hanmail.net)

공동연구 황현숙 (사회의제팀 연구원 | sook@makehope.org)

목차

연구요약	8
프롤로그	17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I. 서론	18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II.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26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36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IV.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52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공유하기

V. 시사점 96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에필로그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26

- 부록 1. 노란테이블2 언론보도 목록
- 부록 2.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후원자 명단

표 목차

[표 I-1] 사업 추진 경과	23
[표 III-1] 사전 세미나 일정	38
[표 III-2] 시민토론회 일정	41
[표 III-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진행 순서	51
[표 IV-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54
[표 IV-2] 발견하기: 무엇이 문제인가	56
[표 IV-3] 논의하기: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64

[표 IV-4] 상상하기: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80
[표 IV-5] 상상하기 모둠토론 결과	89
[표 IV-6] 공유하기	92
[표 V-1] 노란테이블 FGI 참가자 정보	98
[표 V-2] 노란테이블 FGI 결과 요약	112

그림 목차

[그림 II-1]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34
[그림 III-1] 참가자 현황(성별, 연령별)	42
[그림 III-2] 참가자 거주 지역	43
[그림 III-3] 참가자 정치 관심도	43
[그림 III-4] 참가자 이념적 성향	44
[그림 III-5] 19대 총선 지지 정당	45
[그림 III-6]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	45
[그림 III-7] 노란테이블 토론틀킷	46
[그림 III-8] 노란테이블 준비물	48
[그림 III-9] 노란테이블 진행 순서	48
[그림 IV-1] 문제발견 카드	57
[그림 IV-2] 문제발견 키워드 선택 결과	59
[그림 IV-3] 모의투표를 위한 가상공보물	66
[그림 IV-4] 기준발견 카드	67
[그림 IV-5] 논의하기 키워드 선택 결과(개인)	70
[그림 IV-6] 논의하기 키워드 선택 결과(모둠)	73
[그림 IV-7] 상상하기 결과물: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88
[그림 V-1]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지수(2015년)	114
[그림 V-2]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116
[그림 V-3]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117



연구요약

연구요약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주인공인 자리이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목소리든 존중한다. 희망제작소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 토론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노란테이블’ 토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계속되었다.
- 첫 번째 노란테이블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매우 높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기획했다.
- 희망제작소는 ‘노란테이블2’에서 유권자로 전략한 시민을 토의를 통해 재발견해내고자 했다. 그 형식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이다. 이 토의는 공적사안에 대한 아주 가벼운 대화에서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적인 대화까지 그 범주가 매우 넓다.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필요한 대중들의 발화형식이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항상적으로 시민교육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정치참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이다. 공급자인 정당과 정치권이 좋은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한계는 명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권자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이 ‘좋은 대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좋은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토의를 통해, 시민이 말하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 연구진은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노란테이블2 토론틀킷을 제작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185명이 신청했다.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좋은 대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대표의 상을 논의하는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았다. 따라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노란테이블2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사전 세미나를 기획했다. 시민토론회 2주 전인 2015년 10월 24일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미나에는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 11월 7일 서울 종로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았다. 모의투표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한 장의 포스터에 그려냈다. 시민토론회의 2부는 모둠토론 결과 공유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정당의 신진 정치인 및 정치평론가와 함께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 시민토론회 참가자 70명 중 남성은 48명(69%), 여성은 22명(31%)이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는데, 20대가 25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었다. 참가자 사전조사 결과(65명)를 보면, 참가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다수였고, 소수이지만 대구, 부산, 강원, 경북, 전남, 충북 등도 있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평소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53명, 82%)고 답했다. 본인의 이념적 지향은 진보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34명(52%), 중도적이라는 답변은 20명(31%)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답변이 22명(30%)으로 가장 많았다.
- 토론은 희망제작소가 연구·개발한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을 사용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문제발견’ 카드와 ‘기준발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 노란테이블은 3~8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토론은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공유하기’ 5단계로 진행된다. 노란테이블은 모든 참가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급적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진행한다. 사회자는 이러한 노란테이블의 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참가자들은 발언자(토론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한다. 기록자는 토론 내용의 정리와 공유를 위해 기록을 맡는다.
- 토론의 첫 단계는 ‘자기소개’이다. ‘나의 투표 이야기’를 주제로 자기소개를 나눈다. 스토리 중심의 대화를 통해 주제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구성이다. 노란테이블 토론의 규칙을 익히고, 앞으로 이야기 나눌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단계이다.
- ‘발견하기’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이다. 참가자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로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소통부족’,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근시안적 정책’, ‘지역주의’ 순이었다. 참가자들은 시민의 대표자인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통부족의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개인의 태도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의나 정당 구조, 선거제도 등 다른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논의하기’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정하는 토론의 핵심 단계이다.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모의 국회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좋은 국회의원의 선택 기준을 말한 다음에는 참가자들이 선택한 키워드 중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모둠별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합의해서 도출하도록 한다. 12개의 모둠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소통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상생’, ‘전문성’이었다.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자기만의 기준을 찾고, 또 다른 기준을 선택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시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
- ‘상상하기’는 추상적으로 제시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다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좋은 대표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기 생각 속의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선택한 기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점과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반영한 인물을 그려본 작업의 결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30대 후반의 여성 · 주부 · 엄마로 요약할 수 있다.
- ‘공유의 시간’은 앞서 나눈 모둠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참가자들과 이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더 많은 이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토론툴킷에 포함된 요구 카드에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 또는 작은 실천을 적어보도록 한다.

이제 노란테이블을 마칠 순서이다. 전체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

- 노란테이블2의 논의 결과와 토론 참여 효과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 토론 참여자들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연령, 성별,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총 10명을 선정했다. 인터뷰는 2016년 1월 6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 마포구의 '미디어카페 후'에서 진행되었다.
-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이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투표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나 의미, 정치적 사안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서 참여하고,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공간 또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해도 주변에 함께 토론할 사람을 찾기 어렵고, 지역에서도 소통의 채널이 부재하다는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보다 우리 사회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토론의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정치적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과 시각의 다양성을 체험했으며, 이런 토론의 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곧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 정치 캠페인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그 답을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deliberation democracy)에서 찾았다. 공적 사안,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방식이고, 지금 한국정치에 꼭 필요한 시민 정치참여의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적 활동 활성화, 정치참여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언어적 활동,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시민토론은 기존 여론조사나 연구처럼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왜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민토론의 기대효과는 첫째, 후보 선택의 기준을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성찰적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토론을 통해 각자의 선택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선거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노란테이블은 시민토론의 장이면서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대중들이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 말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 토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참여와 합리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
- 토론에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나 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제시하는 결과는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먼저 토론을 함께한 시민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고,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란테이블 토론의 장을 기획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다.
- ‘노란테이블2’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만드는 자리로 기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누가 좋은 대표인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토론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바라는 기준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다음엔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 그 다음엔 누가 ‘좋은 시장’인지 노란테이블 위에서 토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로그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희망제작소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 토론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노란테이블’ 토론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수운회관에 300명의 시민이 모였다. 나이, 직업, 성별, 정치색도 모두 달랐지만, 시민이 직접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주인공인 자리이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목소리든 존중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이다.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론툴킷을 연구·개발했다. 툴킷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말문을 열 수 있었고, 게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바라지만 우리 사회 곳곳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매우 높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좋은 대표, 좋은 정치의 기준을 정하고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제 나쁜 정치를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1.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I.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또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서 더 나은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다.

2015년 가을, 노란테이블2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기획되었다. 희망제작소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토론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 공개모집에는 185명이 신청했고, 세미나와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시민토론회 결과를 알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도 진행했다.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원들의 문제로 소통부족,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근시안적 정책 등을 꼽았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는 소통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상생, 전문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반영해 12개의 모듈에서 그려낸 시민이 바라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은 취업, 결혼, 출산,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좋은 생각과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노란테이블2에 참여한 시민들은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

음으로 모인 것이었다. 노란테이블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더 많은 시민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시민토론회는 끝났지만,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 가이드와 토론툴킷을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¹⁾ 토론에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나 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제시하는 결과는 좋은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먼저 토론을 함께한 시민들의 의견이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란테이블 토론의 장을 기획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다.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누가 좋은 대표일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기로 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토론 설계에 들어갔다.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 토론 키워드를 구성하고, 안전을 주제로 진행한 노란테이블1을 참고하여 모의토론을 진행하며 토론 단계를 정비하고 토론툴킷을 제작했다.

노란테이블2 시민토론회는 희망제작소 주최, ‘한겨레21’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한겨레21’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참가자 공개모집을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민토론회 개최 소식부터 토론 결과까지 보도해주었다.

1) 희망제작소,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http://www.makehope.org/?p=33501>)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토론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 했는데, 신청자는 185명이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란테이블2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를 담은 글과 인터뷰 기사 등을 8화에 걸쳐 연재했다.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3일간 진행된 본 프로젝트의 후원자수는 120명이었고, 후원금액은 1,527,610원이었다. 노란테이블2는 시민토론회 참가자는 물론 스토리펀딩 후원자 등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²⁾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 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좋은 대표의 상을 논의하는 토론은 흔치 않았다. 따라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토론회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 세미나를 기획했다. 시민토론회 2주 전인 2015년 10월 24일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미나에는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는 그동안 정치나 사회이슈와 관련된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은 분들이 절반이나 됐다.

2주 뒤인 11월 7일, 시민들이 다시 모여 한국 정치의 문제를 논의하고,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에 대해 토론했다. 이 날 시민토론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았다. 모의투표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한 장의 포스터에 그려냈다. 시민토론회의 2부는 모듬토론 결과 공유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정당의 신진 정치인 및 정치평론가와 함께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프로젝트 연재 글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페이지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356>)에서 볼 수 있다. 스토리펀딩의 후원자 명단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실는다.

[표 1-1] 사업 추진 경과

단계	내용	기간
기획	• 기획안 작성	2015년
	• 자료 조사	8월
	• 세미나 내용 구성 및 토론 설계 - 모의토론, 노란테이블1 응용 - 2차 모의토론(희망제작소 연구원 참여) 문제 수정 - 토론툴킷 디자인, 제작 • 토론회 현장 기록, 공유 프로그램 제작(웹툰)	9월 ~ 10월
홍보 참가자 모집	•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참가자 모집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홍보 - '한겨레21' 지면, 홈페이지 광고 및 칼럼 게재 -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연재. 10/13~11/14 총 8회 발신	9월30일 ~ 11월10일
	• 참가자 공개모집 10월 19일 기준, 130명 접수 • 참가자 공모 연장, 10월 30일 마감. 총 185명 접수	9월30일 ~ 10월30일
세미나	• 사전 세미나 개최 - 워크숍, 강연(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이관후) - 71명 참석(신청자 61명, 현장접수 10명)	10월24일
	• 퍼실리테이터 교육 - 중·고교 교사 7인, 연구원 5인(진행: 송하진, 이관후)	11월3일
시민토론회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 시민토론자 70명 참여 - 패널토론(이철희, 이준석, 이동학, 조성주, 윤태곤)	11월7일
결과 정리 언론 보도	• 모임 과정과 결과 정리, 기사화 - 희망제작소 뉴스레터(11/11) 발신 - 보도자료 배포, 한겨레21 등 언론 보도 •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해당 기관에 전달	11월 ~
보고서 발간	• 참가자 FGI(1/6) • 전문가 자문회의(1/26) •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 PDF파일 공개(3/30) • 보고서 집필, 발간	~ 2016년 5월

본 보고서는 노란테이블2의 사업결과보고서로 노란테이블2의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토론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정리해 담고자 했다. II장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III장은 2015년 가을 진행한 노란테이블2 세미나와 시민토론회의 개요, 참가자 정보,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구성과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IV장은 노란테이블2 토의의 실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공유하기’ 각 단계의 활동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시민토론회의 현장 기록을 옮겨 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V장에서는 시민토론회 참가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노란테이블2’ 토론 결과의 의미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I.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정치에서 일상화된 용어다.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학자에 따라 정당체제, 정부형태, 선거제도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 지역주의와 같은 정치행태에 그 책임을 묻기도 한다. 한편 정치사회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서로 다른 진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정당체제를 문제로 제시하는 편에서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균열과 집단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과 그러한 정당들 간의 정책 경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형태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순기능적 측면을 상실했다고 보고 내각제 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고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발전이 어렵다.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 환경의 낙후함이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서 언론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견제 능력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종편 채널들이 함량 미달의 정치뉴스를 잠식하고, 주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약화를 꼽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시민사회의 주요한 주체들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인적 분야에서 약화가 나타났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물리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보수단체들이 불균등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각각의 대안들은 실제로 긴밀히 연계되었을 때에 효율적으로 작동이 가능한데, 이론적 · 실천적으로 그러한 연계지점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안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선부른 포기과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형태나 시민의회와 같은 차별적인 대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을 정치 개혁의 필수적 대안으로 여기거나, 직접 민주주의적 수단들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탈정치적 대안은 이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논의의 풍부함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하나는 그러한 대안들이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대안을 가장 반기는 쪽이 바로 현재의 제도권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안과 밖을 동시에 향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도개혁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 대안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당이 기존의 정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실현가능하고 한국정치 발전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 선거를 없애고 시민을 추첨으로 뽑아 의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조만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면, 그 이전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투표하는 기계 그저 유권자로 전락한 ‘시민’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유권자가 아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노력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선거에 압박하여 벌어지는 ‘투표독려’ 수준에 지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정치참여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여전히 ‘유권자’로서의 정치 참여다.

대의민주주의 연구자들인 J.S. 밀이나 한나 피트킨 같은 학자들은 선거의 중요하고 큰 의미를 시민교육적 차원에 둔다. 선거캠페인과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상호 토론하면서 좋은 후보를 골라내고 기준을 정해가는 일종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 선거란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를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 축소·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다.

2000년, 수동적 정치참여에 대한 반발로 시민사회에서 ‘낙천·낙선 운동’이 벌어졌다. 나쁜 후보를 시민들이 걸러내려는 시도였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네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첫 번째는, 이 운동이 시민참여형이라기 보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사회 엘리트들의 운동에 그쳤다는 점이다. 둘째, 선거법 위반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 어려운 일회성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아래로부터 형성된 대표의 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후보들 중에서 나쁜 후보를 골라낸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수준에 멈추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가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를 떨어뜨릴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긴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

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2000년의 낙천·낙선 운동이 정치적 시민운동의 1단계였다면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려는 2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형식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다. 흔히 ‘deliberation’은 한국에서 심의나 숙의로 번역되곤 한다. 심의나 숙의라는 번역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고뇌와 전문적인 논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적사안에 대한 아주 가벼운 대화에서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적인 대화까지 그 범주는 매우 넓다.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에서 필요한 대중들의 발화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어떠한 결정을 위한 심사숙고보다는 대화를 통한 추론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의 우리말로 ‘토의’가 적절하다.

한편으로 이것은 정치에서 수동적인 수요자로서의 유권자, 공급된 정치인들을 선택할 제한적 자유만 가진 투표권자가 아니라 정치의 행위자로서 ‘시민’을 재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치에서 근본적 변화란 기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다.

현실정치를 경험했으면서도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이사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국에서 정치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변화라고 보고 ‘원탁회의’ 운동을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소통의 수준, 담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국민이 변해야 하고, 이게 제일 기본이다.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한국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 절감해야 한다...뜻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은 어떨까? 예를 들어, 보육 문제면 엄마들 200~300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구청의 보육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투표로 결정해서 구의회와 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거다. 실제로 해보니 사람들 생각이 바뀌더라. 엄마들이 모이면 처음엔

언론에 많이 보도되거나 구청에서 중시하는 사안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기조가 바뀐다. 이 같은 일종의 시민의회가 전국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구현되고, 이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이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사회적 의제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혁명이다.³⁾

토의민주주의야 말로 유권자가 시민이 되는 통로다. 우리는 노란테이블2에서 유권자로 전락한 시민을 토의를 통해 재발견해내고자 했다. 공급자인 정당과 정치권이 좋은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유권자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이 좋은 대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존하는 정치적 대표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게 주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좋은 후보들을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토의를 통한 시민이 말하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이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항상적으로 시민교육의 일상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 토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참여와 합리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 이것이 노란테이블2의 목표다.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

3) 이종태 2016.1.13. “비겁한 정치에 언제까지 ‘올인’?” 『시사IN』 434호.

치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별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더욱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정치인들을 ‘물같이’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19대 총선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 교체가 이루어졌다. 가장 큰 두 개의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를 영입했고, 19대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은 56%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숙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유권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N=1,500)에 따르면, 총선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65.6%(984명)이었고, 총선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7.2%(1,308명)로 나타났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1.9%(179명)이었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179명의 절반 이상인 52.8%가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4.5%,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10.0%,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8.4%로 나타났다. 개인적/일 시간 때문에 11.0%, 귀찮아서 1.6% 등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5.7%로 높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그림 II-1]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N=179,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28).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편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텃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과제이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 손에 달려있는 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건 더욱 불가능하다.⁴⁾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4)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42일 앞둔 3월 2일야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수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는 그만큼 준 47개가 되었다.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 · 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 · 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흰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Ⅲ.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시민토론회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전 세미나를 기획했다. 정치참여 또는 토론 경험이 없더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토론회의 주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세미나 내용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생각, 발언을 제한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토론회 2주 전에 개최하였다.

[표 III-1] 사전 세미나 일정

진행순서	발언	시간	내용
개회사	진행자	5분	프로젝트 소개
인사 나누기	모두	10분	-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카드에 적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눔 - 인터뷰: 2-3인. 인사를 나눈 상대가 한 이야기를 모두와 공유함
몸으로 하는 투표	모두	10분	- 강당 바닥에 눈금(0-10)을 그리고, 한국정치에 대한 여러 질문에 참가자들이 이동하며 답해 봄 - 질문: 가족 또는 지인들과 정치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가?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뀔까? 등
강연	강연자	50분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 질의 응답
3인 대화	모두	10분	- 주변 3인이 모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 1분씩 돌아가면서 나누기 - 인터뷰: 2-3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발표
폐회	진행자	5분	토론회 안내

10월 24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71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은 정치 토론회 또는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의 1부는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 2부는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구성했다.

1부는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카드에 적고 다른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동’, ‘소통’, ‘대화’, ‘정치적 양극화 해소’, ‘합의’ 등이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몸으로 투표하기’는 참가자 대상 앙케이트로 진행됐다. ‘가족 또는 지인들과 정치 이야기를 자주 나누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참가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치가 바뀌면 내 삶도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해, 정치가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부 강연은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이관후 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은 “현대 민주주의제도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통한 ‘대표제’가 결합된 형태”이며, “현대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었다. 더 나은 대표를 뽑고자 하는 기준을 시민이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그 근본 취지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유권자가 아니라 시민이 바꾸는 것이며, “기준 없이 욕만 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는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특정 후보가 왜 더 나은지, 뽑을 후보가 왜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에게 11월 7일 시민토론회에 참여해, 좋은 국회의원과 나쁜 국회의원의 기준을 직접 세워 달라 요청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토론회는 2015년 11월 7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했다. 당초 100인 토론회로 기획하였으나 당일 참석자는 70명이었다. 총 12개 모둠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으며, 각 모듬은 5인에서 8인 규모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배치하였다. 모듬토론 사회자로 중고등학교 교사 7인과 희망제작소 연구원 5인이 참여했고, 기록은 대학·대학원생 11명과 연구원 1명이 맡았다. 모듬별 사회자가 테이블 토론을 이끌고, 기록자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위해 개발한 웹 기반 기록 프로그램으로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토론회의 1부는 모듬별 토론 120분으로 채워졌고, 2부는 모듬토론 결과 공유의 시간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은 토론에서 나온 시민들의 기대와 공유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기획한 것이다. 주요 정당의 신진 정치인 및 정치평론가와 함께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노란테이블 진행 방법과 토의 결과는 IV장에 상세하게 담았다.

[표 III-2] 시민토론회 일정

진행순서	발언	시간	토론 진행	응답
진행 방법 안내	전체 사회자	5분	노란테이블의 규칙과 의미 안내	
소개하기	모두	15분	'투표'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이야기	자기소개와 나의 투표 이야기
발견하기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희망자	25분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 논의 위해 현재의 문제 찾아보기	발견하기 카드 1-2장 선택하고 이유 설명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	첫 번째 답변의 공통점, 차이점 발견. 문제 간의 연관성 찾기
논의하기	모두	40분	모의투표	투표의 기준, 지지후보 결정 기준 말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논의하기	상호토론을 통해 모둠별 좋은 국회의원 기준(5개) 선정
공유하기1	진행자	5분	발견하기, 논의하기 키워드 선택 결과 공유	논의 정리 및 마무리
상상하기	모두, 자유롭게	40분	선택한 기준을 반영해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 그리기	상상하기를 통해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모습 그려보기
			시민의 요구 작성	좋은 정치를 위한 변화 요구 작성
휴식(10분)				
공유하기2	모둠 발표자	40분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상상과 요구를 확인	모둠별 토론 결과 공유
	자유롭게		소감	구체적으로 토론 참가 전후의 생각, 느낌 말하기
패널토론	패널	50분	이철희, 이준석, 이동학, 조성주, 이태곤	상상하기,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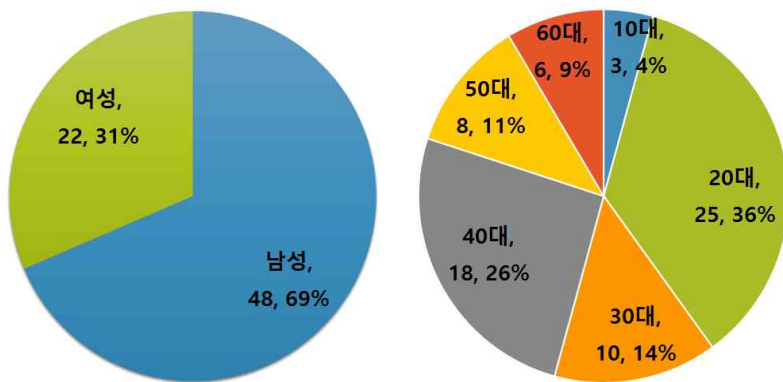
3. 참가자 정보

시민토론회의 참가자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했다. 9월 30일부터 한 달간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총 185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100인 참여를 목표로 기획하였으나, 11월 7일 참석자는 총 70명이었다. 12개 모둠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각 모둠 별로 참가자의 연령, 성별, 지역을 다양하게 배치하였다.

70명의 참가자 중 남성은 48명(69%), 여성은 22명(31%)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명(3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였다.

[그림 III-1] 참가자 현황(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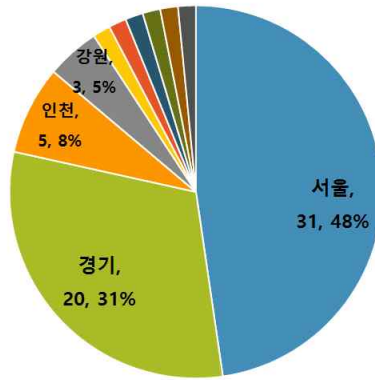
(N=70, 단위: 명, %)



연구진은 참가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의 거주 지역, 정치 관심도 등을 조사하였다. 토론회 참석자 70명 중 사전 조사 응답자는 65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거주 지역은 서울 31명(48%), 경기 20명(31%)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다수였고 소수이지만 강원도, 경북, 전남, 충북, 충남, 대구, 부산에서도 참석했다.

[그림 III-2] 참가자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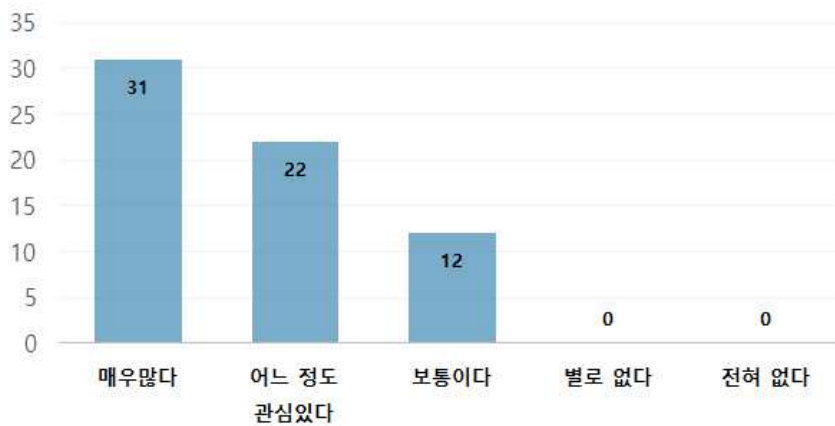
(N=65, 단위: 명, %)



‘평소 정치나 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31명(48%)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22명(34%), 보통이라는 응답은 12명(18%)이었다.

[그림 III-3] 참가자 정치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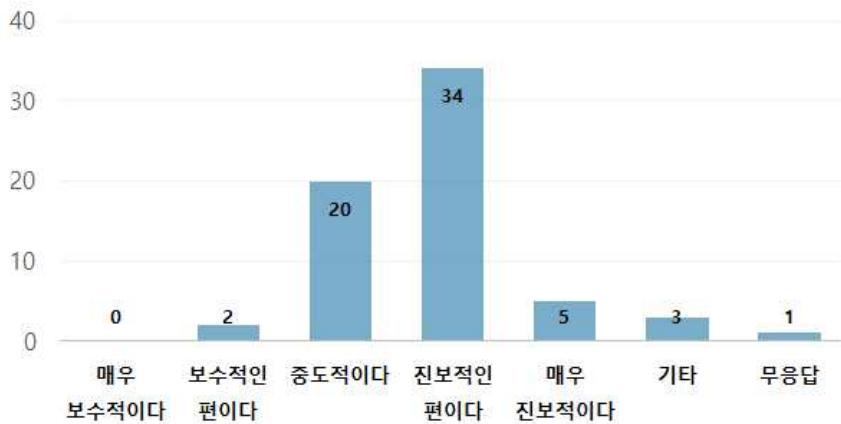
(N=65, 단위: 명)



신청자 본인의 이념적 성향 문항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34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적이라는 답변은 20명(31%), 매우 진보적 5명(8%), 보수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2명(3%)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합리’, ‘보수든 진보든 모든 국민이 같이 잘 사는 데 기여하는 것을 가치로 인정한다’, ‘진보진영이 진정한 보수에 가깝다’는 답변도 나왔다.

[그림 Ⅲ-4] 참가자 이념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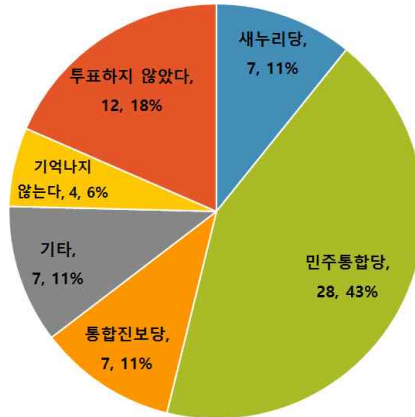
(N=65, 단위: 명)



19대 총선 당시 지지 후보의 정당은 민주통합당이 28명(43%)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12명(18%)이었는데, 여기에는 지난 총선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10대, 20대 참가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기타 정당이라는 응답이 각각 7명(11%)이었다.

[그림 Ⅲ-5] 19대 총선 지지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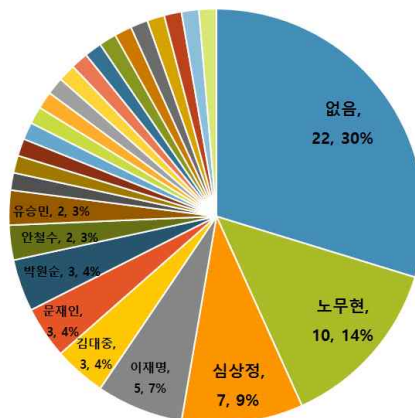
(N=65, 단위: 명, %)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을 물었다.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이 없다는 응답이 22명(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노무현 10명(14%), 심상정 7명(9%), 이재명 5명(7%), 김대중, 문재인, 박원순 각 3명, 안철수, 유승민 각 2명이었다. 김구, 김성식, 김용익, 노회찬, 민병두, 박영선, 서영교, 손학규, 안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은수미, 이정희, 이준석, 조정태, 진선미라는 응답이 각 1명씩이었다.

[그림 Ⅲ-6]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

(N=75, 복수 응답. 단위: 명, %)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1)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원탁토론은 희망제작소가 연구·개발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사용한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원탁토론을 위해 기존의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재정비하였다. 토론툴킷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좋은 대표와 좋은 정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어떤 대표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시민적 자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문제발견 카드 24장(키워드 카드 16장 + 빈 카드 8장), 기준발견 카드 35장(키워드 카드 27장 + 빈 카드 8장), 요구 카드(10장)이다.

[그림 III-7]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노

란색의 발견하기 카드는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들, 특히 국회의원 및 국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적혀 있다. 소통부족, 당론정치, 부정부패 등 학계와 언론, 시민들이 비판해온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

주황색의 기준발견 카드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는 논의하기 단계에서 사용한다. 학력, 재산, 외모 등 국회의인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기준과 상생, 다양성 등의 가치를 담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참가자가 자신만의 키워드를 적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적지 않은 여분의 카드를 제공한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토론을 통해 현재 좋은 국회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의 모습을 그려봤다면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현실의 변화를 참가자들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제작 의도이다.

참고자료는 ‘토론 가이드’와 모의투표를 위한 가상공보물이다. 11월 7일 시민토론회에서는 모듬별 토론 사회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진행 대본’을 제공했고, 이후 이를 수정·보완하여 ‘토론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또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는 토론 과정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는데, 연구진은 가상의 지역구와 인물을 설정하고 실제 선거 공보물과 유사한 형태의 모의투표용 공보물을 제작하였다. 참가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을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인물, 정책의 특징을 다층적으로 반영했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원탁 위에서, 잔디밭에서, 집안 거실에서, 어디서든 노란테이블보를 펼치고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노란테이블보는 토론의 장을 연다는 상징적인 도구이므로, 테이블보가 없다면 노란색 종이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토론툴킷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준비물은 이름표(라벨지), 자기소개 카드(메모지), 상상하기 작업을 위한 큰 종이(2절지), 펜과 색칠 도구 등이 있다.

[그림 III-8] 노란테이블 준비물



토론툴킷이 없어도 노란테이블을 열 수 있다. 카드 대신 접착 메모지, 노란테이블보 대신 노란 종이를 사용하면 된다. 토론카드와 참고자료는 희망 제작소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2) 노란테이블 진행 규칙

(1) 토론의 진행 및 기본 규칙

노란테이블은 3-8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토론의 진행과정은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공유하기’ 5단계로 이루어진다(각 단계별 카드 활용 및 진행 방법은 IV장에서 소개).

[그림 III-9] 노란테이블 진행 순서



노란테이블은 다양한 토론 방식 중 원탁토론의 규칙을 따른다. 원탁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며 서로 배우고 공통의 지점을 찾아가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원탁토론은 모든 참가자가 토론자로 발언해야 하며, 모두가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유동걸, 2012: 108-109).⁵⁾

노란테이블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급적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진행한다. 노란테이블의 토론툴킷과 단계별 구성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사회자는 이러한 노란테이블의 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참가자들은 발언자(토론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한다. 기록자는 토론 내용의 정리와 공유를 위해 기록을 맡는다.

(2)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는 참가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좋은 국회의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토론의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 단계에 따라 참가자들 간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논의를 중재하도록 한다.

10명 이상이 참여해 모둠별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회자 사전 교육을 통해 토론회의 기획의도와 논의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사회자의 질문, 발언권 배분, 정리 수준에 따라 토론의 내용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자 사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체 사회자가 각 단계별 진행 방법을 주로 설명하고 모둠별 사회자는 발언 순서 조정, 시간 공지 등 간단한 역할만 맡도록 한다.

5) 토론의 다양한 유형과 원탁토론의 규칙은 유동걸(201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시민토론회는 참가인원이 100명인 대규모 원탁회의로 기획했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모듬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중·고등학교 교사,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모듬 사회자를 구성하고 1회의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3) 발언자(토론자)의 역할

노란테이블은 모든 참가자가 토론자로서 발언을 하도록 한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한다. 다른 토론자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먼저 얻는다. 발언 순서가 끝나면 다른 토론자들의 발언을 잘 듣고 토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세로 참여한다.

(4) 기록자의 역할

기록자는 발언자의 선택 키워드와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다. 모듬별 논의 내용과 결과를 다른 모듬 참가자들과 공유하는데 사용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문서 공유 프로그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 접착식 메모지 등을 사용해 모듬별 발표 자료를 만들어도 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토론회를 위해 웹 기반의 기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모듬의 기록자는 참가자가 선택한 키워드를 기록 프로그램에서 선택하고, 관련 발언을 실시간으로 입력했다. 기록의 목적은 현장에서의 모듬별 토론 결과 공유와 토론회 이후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5) 진행 시간

노란테이블 토론의 각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가 1회 이상 발언을 하도록 한다. 토론자의 1회 발언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제한한다. 추가 발언은 희망

자를 우선으로,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8명이 한 모둠을 이뤄 토론을 진행한다. 소개하기부터 상상하기까지 토론 시간은 약 120분이 소요된다. 모둠별 토론 인원, 모둠 수에 따라 진행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표 III-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진행 순서

진행 순서	발언	시간	토론 진행	응답
소개 하기	모두	15분	나의 투표 이야기	자기소개와 나의 투표 이야기
발견 하기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희망자	25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정치, 정치인의 문제 토론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	발견하기 카드 1-2장 선택하고 이유 설명 선택 키워드(문제) 사이의 연관성 찾기
			모의투표	투표의 기준, 지지후보 결정 기준 말하기
논의 하기	모두	40분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논의	상호토론을 통해 모둠별 좋은 국회의원 기준 선정
공유하기/ 휴식				
상상 하기	모두, 자유롭게	40분	선택한 기준을 반영해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 그리기	상상하기를 통해 내가 바라는 국회원의 구체적인 모습 그려보기
			시민의 요구 작성	좋은 정치를 위한 변화와 요구 작성
공유 하기	모둠 발표자	40분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상상과 요구를 확인	모둠별 토론 결과 공유
	자유롭게		소감 나누기	구체적으로 토론 참가 전후의 생각, 느낌 말하기

IV.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공유하기

IV.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토론은 ‘소개하기 - 발견하기 - 논의하기 - 상상하기 - 공유하기’ 5단계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노란테이블2의 실제 토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 진행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토론회 기록을 바탕으로 토론자 발언 예를 제시했다.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1) 진행 방식

[표 IV-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활동목적	▪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토론의 규칙을 익힌다. ▪ 사회자는 토론 참가자들의 성향을 파악한다.
진행순서	① 인사를 나누고 이름표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부착한다. ② ‘투표’하면 생각나는 한 단어를 종이에 쓰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투표 이야기를 나눈다. ③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은 1분(~1분 30초)으로 제한한다.
주의사항	▪ 사회자는 토론 진행 순서와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한다. ▪ 발언 시간 제약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 위한 규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자기소개 키워드는 추상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물 혹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10대 참가자가 있다면,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뽑고 싶은 국회의원 또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투표 모습을 보고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툴킷활용	▪ 이름표(라벨지), 자기소개 카드(메모지), 필기구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모인 사람들과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나의 투표 이야기’를 주제로 자기소개를 나눈다. 스토리 중심의 대화를 통해 주제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토론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알아가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며 발언 순서나 시간 등 토론의 규칙을 익히는 효과도 갖는다. 사회자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참가자들의 특징을 파악한다.

모둠 별로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다.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투표’하면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어볼 시간을 준다. 토론의 첫 시작 단계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자도 자기소개를 한다. 사회자의 자기소개는 주어진 시간을 지키면서, 주제에 적합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후의 토론에서 사회자는 진행이나 논의 정리 발언 이외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제한다. 사회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참가자 모두가 돌아가면서 발언한다. 시민토론회 참가자의 자기소개 발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 ☞ 이○○: (약수) 선거운동을 하면 후보자들이 거리에서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책인데, 투표를 할 때 생각하는 사람은 거리에서 만나서 악수를 해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구로에 사는 이○○ … 정치적으로 많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 ☞ 이○○: (투자) 미국에서 7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된 이○○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투자입니다. 투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김○○: (어른) 2007년 대통령선거에 처음 참여했어요. 도장 찍으며 나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설렘이요. 공보물을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의 투표가 있었지만 매번 심장이 뛰는 느낌 받았습니다. 사회가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9세이고, 대구에서 왔습니다.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1) 진행 방식

[표 IV-2] 발견하기: 무엇이 문제인가

활동목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진행순서	①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② 선택한 발견하기 카드 또는 빈 카드에 직접 적은 문제를 중심으로 1분 30초씩 발언 한다. ③ 2차 발언은 앞에서 선택된 카드를 중심으로 문제 간의 관련성이나 유사점,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주의사항	- 문제발견 카드의 내용은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보다 국회의원, 국회에 대한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적 의견을 반영해 구성했다. -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발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2차 발언에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주의한다.
툴킷활용	문제발견 카드, 필기구

‘발견하기’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보기 위한 단계이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다. 모둠토론 120분 중 문제발견 시간은 25분이다. 노란테이블의 주제가 한국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는 것을 고려한 시간 배분이다. 사회자는 이와 같은 토론 단계별 의미를 설명해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토론툴킷에 포함된 노란색의 문제발견 카드를 사용한다.

‘발견하기’ 카드는 16개의 키워드가 인쇄된 것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빈 카드로 구성된다. 언론 보도, 기존 연구 조사를 통해 현재 국회 및 국회의원(정치인)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들을 키워드로 정리했다. 참가자에 따라 각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설명도 함께 적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가자들이 문제발견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문제의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다. 제시된 카드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참가자는 빈 카드에 직접 적어서 내놓도록 한다. 사회자는 가능한 자신의 경험이나 관찰해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토론을 진행한다.

[그림 IV-1] 문제발견 카드



토론자는 여러 장의 카드를 고를 수 있지만, 발언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선택한 문제발견 카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시민토론회에서 60대의 한 남성 참가자는 지역주의, 부정부패를 주요 문제로 꼽았고, 20대의 여성 참가자는 재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문제로 선택했다.

최○○: (지역주의, 부정부패)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 투표소에 가면 청년들에게는 와 달지 않겠지만 연세 든 분들은 아직 고정관념이 있어요. 편중

된거죠. 어디서는 깃발만 꽂아도 되요. 그러다보니까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은 안 됩니다. 투표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뽑고, 지역주의 없이….

- ☞ 김○○: (재선)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재선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유리한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국회의원은 우리의 의견 반영해주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입장을 반영하면 그런 걱정 안 해도 재선 될 텐데 재선만 걱정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참가자는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이라는 키워드 카드를 선택하고, 빈 카드에는 ‘대표성 문제’라고 적어 모두 두 장의 카드를 내놓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소통부족 키워드를 선택하고,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 ☞ 민○○: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대표성 문제) ○○당은 그래도 나운데, ○○당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반대를 위한 당 같아요.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그쪽도 이미 가진 자들의 정당 아닌가 싶고. 국회의원들 보면 서울대 법대 변호사 출신들이예요. 자기가 애초에 가난해본 적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학자금 대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제대로 대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대표성의 문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 김○○: (소통부족, 철학) 소통부족을 선택했고, 또 철학이라고 적었는데요. 소통부족이라는 건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열린 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토론툴킷 카드는 정치 토론을 어려워 할 수 있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쉽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카드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다른 토론자들의 생각과 논의의 방향을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키워드로 논의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위의 참가자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고 토의를 이어나가면 된다.

모둠 참가자 모두가 발언을 마친 다음에는 추가 발언의 기회 제공한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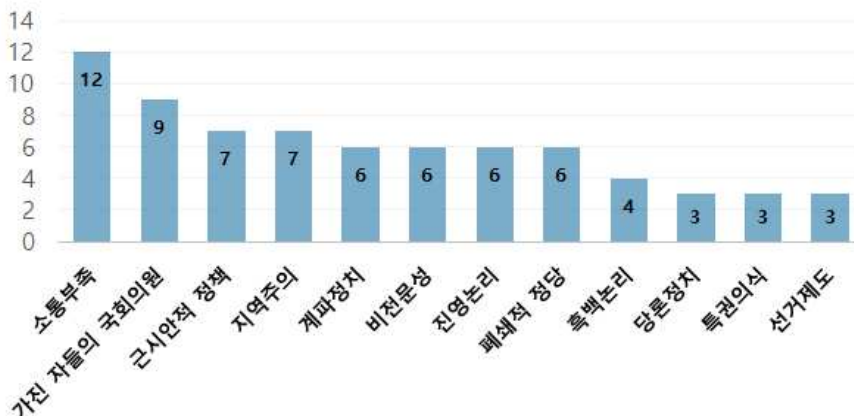
기서는 앞서 선택된 카드를 놓고 각각의 문제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거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발언 시간에 모둠에서 선택된 문제 카드를 놓고 연결 고리를 찾아 설명한 참가자들의 발언을 옮긴다.

- 최○○: 지역주의, 의정활동 부실은 연결돼 있지요. 좋은 국회의원 뽑아야 하는데, 지역주의로 가면 전문성 없으니까 의정활동 부실해집니다. 전문성 없는 사람은 또 전문성 없으니까 자연히 지역주의로 갑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된 겁니다. 이것이 또 지역주의 때문에 의정활동이 거기에 편중되지요. 선거는 1%만 이기면 승자니까. 고통 받고 소외받는 자 위해 일하지 않고 가진 자들의 편으로 가는 것이지요.
- 김○○: 저는 지역주의, 대표, 재선에 소통부족, 공약불이행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내긴 내더라고요. 선거 전에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꿨다고 하지만 ... 실제로는 안정기에는 공약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재선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당론만 따르고, 소통부족, 지역주의,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현상 생기는 것 같아요.

2) 토의 결과

[그림 IV-2] 문제발견 키워드 선택 결과

(개인, 복수선택, 총계 108)



발견하기 단계에서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로 가장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소통부족,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근시안적 정책, 지역주의 순이었다.

‘**소통부족**’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공선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신의 재선이나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김○○: 투표도 그렇고, 국회의원 뽑아도 내 의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평소에도 국민들을 대변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제일 문제 아닐까. 그래서 소통부족을 꼽았다.

☞ 김○○: 젊은 세대들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참여를 했을 때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관료제에 막히기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라고 생각한다. 반영되지 않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가 그렇지 않은가. 확실히 소통에 문제가 있다.

☞ 황○○: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소통이다. 한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계가 없다.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꼽은 참가자들은 정치인 대부분이 기득권층 출신이거나 거기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현재의 국회의원 공천시스템과 투표 행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함○○: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표인데, 국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공감할 못하는 거 같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지지 못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금수저인 그들이 흙수저인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여기 있는 카드를 다 고르고 싶었다.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래도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을 잡은 이유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인 들의 행태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이다. 19대 총선에서 50% 이상이 물갈이 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의 물갈이가 아무리 일 어나도 바뀌지 않는 까닭이 유입된 물이 오염돼서가 아니라 기존 정치판이 그릇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 문제가 곧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은 정말 우리 같은 국회의원을 뽑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을 골랐다. 우리 정치 체계 자체가 뻥이 없으면 정치권 진출하기 어렵고. 좋은 학벌이 있어야 하고, 기 업이랑 친해서 기득권층이랑 맞물려서 의견이 맞아야 하고.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대표하려면 노동자 출신이, 여성이라면 주부가,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아니면 기업 총수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과연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 일단 제가 후보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데, 그 이력, 사회적 위치, 학벌 이런 것으로 이기기 위한 공천만하기 때문 에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권층이 생기는, 사회 지 도급이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정 치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근시안적 정책’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국회의원들이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당장의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10대 참가자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 원이 당장의 선거에 연연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회의원 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인도 시민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반성적 비판도 나왔다.

이○○: 정치라는 게 국가의 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게 정치의 역할 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지금 정치라는 게 어디에 무엇을 건설하고 위치하는 지, 그런데 치우쳐져 있다.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정치인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불만에 대해 합의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을까에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장○○: 정치나 경제 이슈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대입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근시안적 정책이 폐해가 심하다고 느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에 내려주는 입시 지침이 매년 바뀐다.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상황. 성적이나 활동 이런 것보다도, 전형을 얼마나 꿰고 있는지가 대입의 중요한 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을 100년 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 보는 정책이 아니라 그 해 그 해 바뀌는 게 문제다.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안○○: 제 주변에 국회의원도 있다. 그들에게 좋은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니깐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다워야 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다.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하다. 자기 지역의 이권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 국회의원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는 게 정부의 공무원들인데...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맨날 싸우다가 끝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길게 입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240일 이상 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120일 동안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보는 법을 만드는 공부나, 미래를 보고 공익성, 국민이 다 공정하게 느끼는 공익적인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맨날 지역에 대한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 중에는 논리며 자기들 이권 다툼하기 바쁘다. 국회의원도 지역에서 나왔지만 지역 대표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라고 내보낸 거지. 자기네 지역만 잘 먹고 잘살게 하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선택한 참가자들은 지역주의에 기대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나 의정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고향에서 어르신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너무 완고하다. 토론을 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완고하니까 힘들다. ○○당이라면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아주 쉬워서 해당 당 의원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이 이상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유지나 기득권 유지가 제1의 목적인 것 같다.

- 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청년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세든 분들은 고정관념이 있다. 투표소 가면 형님아우 하면서. 그런 지역주의가 문제다…어디서는 깃발만 꽂아도 된다. 그러다보니까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또 지역주의랑 의정활동 부실은 연결돼 있다. 좋은 국회의원 뽑아야 하는데 지역주의로 가면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고 의정활동도 부실해진다.

각각의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참가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소통부족의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개인의 태도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의나 정당 구조, 선거제도 등 다른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는 문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최○○: (소통부족, 지역주의)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차벽으로 덮어버리고. 이 정도 되면 이야기를 들을만한데 무시하고…권력자들의 소통부족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생활밀착형 정책이 많으면 좋은 건데, 그런 게 안 되는 건 지역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대선거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당제로 갈 수 있도록 정당투표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러면 소통부족, 지역주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 황○○: (소통부족, 공감능력 결여, 폐쇄적 정당) 지역구라거나 비례대표든지, 비례대표라면 어떤 계급이나 집단을, 지역구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텐데, 그걸 넘어서는 정치적 공공선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더 우위의 당론으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선이라는 건 커다란 국민들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텐데…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서 책임성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다. 소속된 집단, 대표 집단을 너무 적게 보고, 자기가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거나 표 받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공감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갈 것 같다. 공감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 것 같다.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1) 진행 방식

[표 IV-3] 논의하기: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활동목적	- 모의투표와 좋은 국회의원 기준 찾기를 통해 나의 투표기준을 돌아본다. - 다양한 의견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설득을 통해 합의된 기준을 마련한다. - 선택의 결과가 발견하기 단계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본다.
진행순서	① 만일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한다. 발견하기 카드를 활용해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본다. ② 투표는 거수로 진행한다. 발견하기 카드를 내놓고, 기준 선택의 이유를 1분 30초씩 설명한다. ③ 모두의 의견을 듣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다섯 가지를 정한다.
주의사항	- 모의투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표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일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상의 후보들은 모범적인 모델이 아니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 진행자는 지지후보의 결정 기준, 투표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툴킷활용	가상공보물, 기준발견 카드, 필기구

‘논의하기’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정하는 토론의 핵심 단계이다.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가상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보물을 보고 투표를 하도록 한다.

논의하기 단계에서 핵심은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각

자의 투표 기준을 밝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과정이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의 선택 기준을 말한 다음에는 참가자들이 선택한 키워드 중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합의해서 도출하도록 한다.

모듬 사회자는 논의하기 단계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발언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토론툴킷의 참고자료인 가상공보물은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논의하기 단계에서 꺼내서 나눠준다.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동일한 자료를 주어진 시간 내에 읽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공보물은 공약, 후보의 연령, 성별, 인상 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제작했다. 기존의 총선 후보자 공보물을 참고하여 근래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을 반영하여 작성했다.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50대, 남성, 대학졸업자라면 네 명의 가상 후보는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재력, 가족, 범죄 사실 등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또 직업, 경력, 주요 정책, 소속 정당 등도 특색을 부여해서 참가자들의 국회의원 선택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논의하기 단계에서 모의투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표가 끝나면 사회자는 ‘논의하기’ 카드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고 그 조건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논의하기 카드는 지역구 발전, 국가 발전, 전문성, 경력, 재산, 상생, 다양성 등 27개의 키워드를 담았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 모듬별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2-3개의 기준만 선택하도록 한다. 모의투표에서 지지 후보 결정 이유와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을 연결시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그림 IV-4] 기준발견 카드



12개의 모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5번 모듬의 논의를 옮긴다. 8명이 토론에 참여한 5번 모듬에서 선택의 기준으로 경력, 성별, 정치소신, 국가발전, 도덕성, 전문성, 실천력, 정치신인, 다양성, 상생, 정책의 구체성으로 모두 11가지가 꼽혔다.

☞ 김○○: (성별) 여성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남자들 보다 앞으로는 여성한테 기회를 줘야 합니다. (3번 후보가) 이혼했는데 남편과 자식에 대한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 거고, 당 이름도 창조개혁당이고, 범죄 없이 깨끗이 살아왔고…. 다른 남성들 보다는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여성한테 기회를 주는 게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이 정치를 망쳐왔지 않습니까.

☞ 손○○: (국가발전) 경력, 재산, 학력 보지 않았고 당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약만 봤는데 …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뺏고, 듣기 좋은 말, 추상적인 말 빼다 보니까 1번으로 좁혀졌어요. 경제민주화 실현 등 말씀하신 정책이 개혁적이라고 이해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국가 발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보다는.

☞ 함○○: (전문성, 실천력) 1번 선택했습니다. 경력이랑 공약의 일치성을 봤어요. 해온 경력을 봤을 때 공약을 잘 알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추려냈더니 1번이랑 4번이 남더라고요. 4번 고르지 않은 건 와 닿지 않았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천력이라는 건, 뵈면 다음에 하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공약을 봤을 때 그럴법한 걸 따라서 하기로 했어요.

☞ 최○○: (다양성, 상생, 학력) 저는 국회의원인 사람들의 삶을, 여기 지도자나 검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한 경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3번 후보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전형적인 마을 기반의 운동들 관련 활동을 한 사람이고. 이혼이라는 아픔은 오히려 … 차별당하는 위치에서, 사실 이혼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고. 멀리서 외국 생활을 했다는 건 민주주의가 뭔지, 정치나 인권이 뭔지 구체적으로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각자의 지지후보와 선택 기준을 이야기하고 나면, 사회자는 선택된 기준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나머지 카드는 정리한다. 이제 토의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국회의원의 기준 5가지를 선정한다. 모의투표는 좋은 국회의원의 선택 기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다시 일반적인 차원으로 그 논의를 모아낼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를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이때 참가자들은 자

신이 선택한 키워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참가자의 선택과 설명에 동의한다면 그의 선택을 지지해도 되고,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모둠에서 5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상호토론을 통해 유사한 키워드를 묶어내는 방식으로 5개를 추릴 수도 있고, 선택된 키워드 카드를 놓고 참가자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다수의 선택을 받은 키워드를 제출한 모둠도 있었다. 주어진 시간 내에 5개의 키워드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참가자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회자가 무리하게 선택을 종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의 공유점 또는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5번 모둠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상호토론을 통해 선택된 기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정했다. 투표도 모둠 사회자가 아닌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3개의 기준에 투표했다. 이들이 상호토론을 통해 각자가 선택한 기준의 의미를 확인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로 선택한 5개의 기준은 전문성, 다양성, 경력, 국가발전, 도덕성이었다.

- ☞ 이○○: 그룹화한다면 정치신인은 경력에 맞지 않을까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 ☞ 함○○: 정치신인은 다양성과도 관련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국가발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표를 주다 보니까 지역에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 ☞ 사회자: 여기 나온 키워드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 최○○: 제가 다양성을 선택했는데,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계층은 성별도 되고, 경제적인 것도 되고, 직업에 의한 거, 학벌에 의한 것... 이런 식의. 국회의원 자체가 다양해져야 한다.
- ☞ 김○○: (국회의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죠.
- ☞ 손○○: 토론을 하면서 보니까 도덕성 같은 경우는 상위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 사회자5: 동의하시나요?

☞ 이○○: 복수 투표로 허용해서 다수결로 5개를 딱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당 3표 정도씩 하면 어떨까요.

☞ 사회자: 그럼, 투표를 해볼까요?

2) 토의 결과

논의하기 단계에서는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어떤 면에서 ‘좋은 국회의원’인지 이야기하고, 테이블별로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을 모아 내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별로 참가자들이 선택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5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도록 했다.

투표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그 이유도 설명해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몇 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투표의 이유를 이야기 해보는 과정이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70명의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키워드는 정치소신, 다양성, 소통능력, 상생, 실천력 순이었다.

[그림 IV-5] 논의하기 키워드 선택 결과(개인)

(복수선택, 총계 110)



모의투표를 진행한 가상 후보의 특징 다음과 같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 안정을 강조한 1번 후보(1959년생, 남성), 현역 3선 의원으로 지역개발 예산 확보에 앞장서왔고, 지역 개발 공약을 앞세운 2번 후보(1949년생, 남성),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3번 후보(1977년생, 여성). 검사출신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한 무소속 4번 후보(1974년생, 남성)를 출마시켰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30대 여성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내건 3번 후보가 가장 많은 표(25표)를 받았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1번 후보가 2위였고(21표), 무소속의 4번 후보가 3위를 차지했다(16표). 현역 3선 의원인 2번 후보가 가장 적은 표(7표)를 받았다.

모든 참가자들의 발언을 검토해 보면, 동일한 키워드를 선택했지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도 있고, 한 후보자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참가자들 중에서는 1번 후보자가 노동자, 상고 출신이라 선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3번 후보가 여성이고 사회적경제 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지한 참가자들이 많았다. 가상의 후보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번 후보 지지자들은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 정치소신, 실천력, 진정성 등을 꼽았다. 1번 후보는 노동자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했다. 여당 후보로 출마했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노동 문제 및 재벌개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경력과 정책의 일관성이 돋보이고 이 점에서 진정성, 실천력이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노동자, 상고 출신, 유일한 군필자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가진 후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것, 국회의원 개인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공보물의 경력을 꼼꼼하게 살펴 본 한 참가자는 도의원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2번 후보는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3선 현역 의원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그의 실천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

다. 2번 후보의 경력과 정책을 두고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가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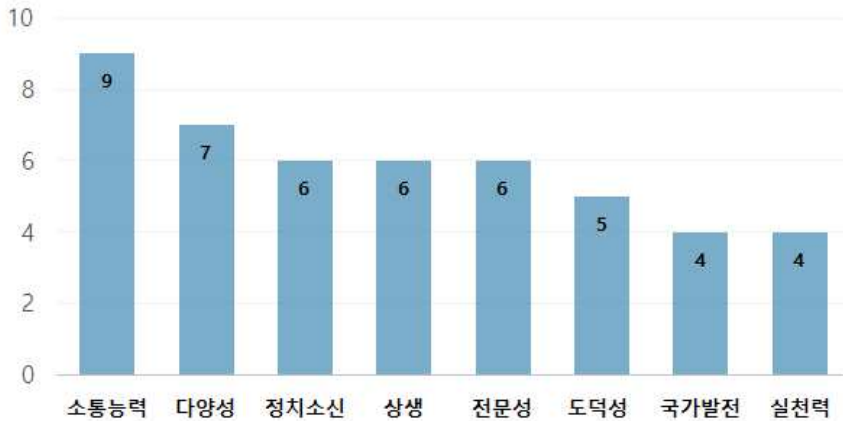
3번 후보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소통능력’과 ‘다양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른 후보들이 이미 국회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라면, 3번 후보는 여성, 사회적경제와 같은 새로운 가치의 제시, 소수 정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4번 후보를 지지한 참가자들은 정치소신과 실천력, 도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4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여당 대표와 재벌 총수를 구속 수사한 이력이 있고, 교육 도시 실현과 깨끗한 정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4번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경력에 1번 후보와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눈치 보지 않고 정치개혁을 하다가 탈당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뽑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나왔다.

네 명의 가상 후보 공보물에서 참가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의 특징들을 포착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선택한 기준을 모아놓고, 토론을 통해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모아내는 것이 논의하기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였다. 12개 모둠에서 합의한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으로는 ‘소통능력’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다양성’, ‘정치소신’, ‘상생’,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논의하기 키워드 선택 결과(모둠)

(12개 모둠, 복수선택, 총계 65)



논의하기 단계에서 ‘소통능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 건, 발견하기 단계에서 소통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 것과 이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갈등조절능력, 중간조정자역할이라는 기준도 소통능력으로 정리하였다. ‘소통능력’은 의사소통의 기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보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주민 참여에 바탕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의 소통 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이○○: 20대라 그런지, 젊은 정치인에게 끌린다. 3번을 뽑았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좀 읽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취업도 잘 안되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본적인 욕구 충족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래서 조선에다 헬을 붙여서 생겨난 신조어가 ‘헬조선’이다. 현재 청년들은 패배감에 젖어있다. 그들을 보듬어주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박○○: 2번 선택했는데, 정책을 훑어보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진행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있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실과 비춰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2번 후보가 행정 경험이 있고, 과거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책을 싫어하지만, 앞으로 돈을 얼마를 갖고 오겠다 보다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지역에서 크게 내세워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민들과 함께 작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번 후보가) 행복학교 교장이나 심리치료 경험을 보면 시민 사회와 충분히 소통할 자격이 되는 것 같다. 위에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훨씬 더 많이 소통할 것 같다.

박○○: 청소년노동자든 농민이든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이 분들도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갈등도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소통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리더가 있다. 그분들은 나름 전문성도 있고 소통능력도 있고 갈등 해결 의지나 경험이 풍부하다.…우리가 소통을 얘기했는데 상생, 화합이란 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게 협력이나 협동하기 위한 배경…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라고 본다. 이들은 투쟁, 투쟁하면서 누군가와 갈등 구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이라 소통능력도 키워온 분들이라 괜찮을 거 같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준은 ‘다양성’이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별, 연령, 계층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을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할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다양성은 소통능력 또는 상생의 키워드와 함께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논의되는 다양성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혹은 장애인, 소수자, 청년들이 국회의원 되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다양하게 펼치는 게 중요하다.

김○○: 다양성을 뽑았는데, 공약에서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후보 출신의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유럽의 여성의원 쿼터제 있듯이, 우리도 의원 쿼터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노동자 출신의…전문성과도 연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최소 몇 퍼센트 있어야 한다. 사실 (현

재 국회)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 대부분 법조계 아니면 경제인 출신들 아닌가.

-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 중에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목표가 같을 수도 있고, 실천의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다양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 모둠에서 5개의 합의 기준을 도출하면서, 다양성 개념을 놓고 오간 논의를 옮긴다. 이 모둠에서는 정치에서 왜 다양성이 필요한지, 어떤 의미의 다양성인지 참가자들은 토의를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의미를 확인하고 논의를 심화시켜 나갔다.

- 윤○○: 성별 말씀하신 건, 다양성으로 넣어도 되지 않나?
- 이○○: 계층 간의 다양성이 담보되면 좋은 것 같다.
- 구○○: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 캐나다 내각 구성할 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의구심이 들었다. 우리나라 인사 같은 경우, 전라도나 경상도나 출신을 중요시 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득권에 가까운 사람은...한국의 장관이나 삼성의 사장 평균을 내보면 52.6세에 서울대학 졸업하고, 경북출신, 강남에 사는 그런 상이 있다. 그게 문제는, 그런 분들이 반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90%가 모여 있는 거다. 그 분들이 훌륭한 경력을 가졌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다양성을 넣어야지 전반적인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게 있다. 두 번째는, 소수자한테는 적극적 조치 같은 걸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같은 조건을 주면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소수자에게는 항상 조금씩 더 주는 게 맞다.
- 구○○: 다양성의 첫 번째 이유, 정치인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뉘앙스 같다.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시민사회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재편이 된다면 정치인이 잘한다 그런 게 중요한건 아니지 않을까 다양성이 꼭 정치 쪽에서 필요한가.
- 윤○○: 시민사회를 정당이 대변하고, 정당의 변화와 힘이 의원 대통령의 힘으로 표상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이렇게, 의회는 저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의 경험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고.

- ☞ 구○○: 다양성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렇게 엘리트면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지 못할까? 전라도는 경상도를 이해 할 수 없는가?
- ☞ 이○○: 다양성이라는 건, 소수자가 배제된다는 건 엘리트가 대표할 수 있지만 담보되지 않는다. 소수자를 대표할 때, 나쁜 엘리트였을 경우, 그것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인 문제인 것 같다.
- ☞ 윤○○: 소수자는 누군가에게 픽업 당한다, 그런 의식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적인 정치에서 소수자들은 픽업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조직화해서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엘리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좋은 교육을 받고, 돈이 많고, 그것도 엘리트지만. 정치에서의 엘리트라는 것은 선출직 엘리트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미 정치엘리트이다.

세 번째는 ‘정치소신’이다. 소신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있는 바’이다. 원칙이나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참가자들은 부정이나 불의 앞에서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정치소신을 이야기했다. 한 참가자는 정치인이 자기 소신만 내세울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소통이 전제된 소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 김○○: 지역주의, 세력싸움 이런 게 문제 아닌가. 양당구도, 아니면 지역 구도를 깨겠다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 이 문제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수직적 정당 구조 깨겠다는 쓴 소리 내는 정치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 요즘 정치, 소신 없는 정치가 문제다.
- ☞ 김○○: 4번 뽑았다. 그의 활동에서 소신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 재벌 총수 구속 했다는데, 정권이나 정당 눈치안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재벌 총수 구속하고, 정치 개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출세 못한다. 자기 옷을 벗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각오하고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 임○○: (당선자가) 소신대로 밀어붙이는데 ... 어떤 공약은 안 지켰으면 좋

겠는데 꼭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당선됐으니까 공약 지키는 것. 소신이 옹고집이 아니라, 민심을 반영한 정치소신이어야 한다. 소통 없이 소신만 있으면 난 당선됐으니까 예산 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이 밑바탕이 된 소신이 필요하다.

‘상생’은 정치 영역에서 양보나 협의가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다수결보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 상생의 가치나 태도를 통해 파편화된 공동체의 복원에 정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다양한 계층적 이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생은 다양성, 소통능력 기준과 함께 논의되었다.

☞ 민○○: 정치는 양보나 타협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현실이다. 상생이 바로 양보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치로서 상생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다...적자생존이나 승자독식이 아니라, 의석수가 아무리 많은 정당이라고 해도 소수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그런 게 상생일 것 같다. 지금은 과반수 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 아닌가. 상생을 통해 일종의 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상생이 중요하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같은 걸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작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하더라.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이 있던 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이○○: 상생은 다양성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1번이 불편했던 건 규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점이다. 3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보였다. 국가적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움직이는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에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역 내에서의 상생이 위로 올라갔을 때, 국가 정책의 시각이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계층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적으로 건강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다양성과 상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6개의 모듈에서 ‘전문성’을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선택했다. 누군가 전문적이라고 평가할 때,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같은 직업을 이야기한 참가자도 있었고, 노동자라면 노동 분야에 환경 운동가라면 환경 정책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마○○: 전문성하고 책임성 골랐다. 자기가 전문분야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보좌관이 써준 걸 읽을 때도 뭔지 모른다.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 지역을 위한다면, 전문성도 있어야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 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에 개입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뽑을 때처럼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방위원회 입법하려면 국방을 알아야. 경제를 아는 사람이 그 분야 일을 해야 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을 담당하고. 선거는 연습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개인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성 개념에 대한 한 모듈의 논의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전문성, 정치에 있어서 전문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보여 준다.

☞ 정○○: 전문성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좌진들이 있고...국회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꼭 전문성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임위도 비례대표는 부합하는 경우 있지만, 외통위나 이런데 지역구 의원들 거의 전문 지식 없이 간다. 전문지식을 채워주기 위해 보좌관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전문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 최○○: 보좌진들이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채워주는 거다. 국회의원이 이끌어 줘야 한다.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보좌진들이 앞서 가면 국회의원은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그냥 대본만 읽고 끝날 수 있다.

☞ 정○○: 물론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을 길러가

는 게 좋은 국회의원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전문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 최○○: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다른 분야에 가서도 비슷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 정○○: 외교통상 쪽에 전문성 갖고 있는 의원이라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되어야 하나?
- 한○○: 전문성에는 게으름과 노력이 있으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노력 하면 공부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나와도 다 정치학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간다. 변호사, 교수였던 사람이 가는데. 어떤 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교수는 자기 학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지, 정치에 대한 전문성이거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건 아니지 않나.
- 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 지식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라면 법조인이라면 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인권감수성에 남다른 사람들이라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한 상임위 안에도 다양한 전문직이 있어야 다양한 관점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르다든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것과 실천력, 책임감 같이 필요하다.

12개의 모둠에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기준은 소통 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상상, 전문성이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중요한 기준의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합의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절대적인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다. 또 자신과는 다른 기준을 선택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1) 진행 방식

[표 IV-4] 상상하기: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활동목적	▪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본다.
진행순서	① 발표자와 기록자를 정한다. ② 논의하기 결과인 5가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 (후보의) 상을 그려본다. ③ '우리의 요구'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실천 또는 정치권에 바라는 점들을 적는다.
주의사항	▪ 자유롭게 토론하되, 소수의 토론자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논의가 잘 진전되지 않더라도 사회자가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각자 메모지에 생각을 적어보고 적은 내용을 모아 확인하며 합의점을 찾아간다.
툴킷활용	▪ 요구 카드, 큰 종이, 필기구, 색칠도구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단계이다. 모둠 사회자는 이 작업의 기록자와 발표자를 먼저 정한다. 기록자는 준비된 종이에 논의 결과를 적는 역할이고, 발표자는 상상하기 결과물을 전체 참가자 앞에 나가 발표하게 되므로 토론자들의 논의를 잘 듣고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상하기는 논의하기 단계에서 합의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다시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좋은 대표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단계이다. 사회자는 지금까지 모둠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기시키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던진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기 생각 속의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선택한 기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점과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노란테이블 토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둠토론의 기록을 옮긴다.

- ☞ 사회자: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 ☞ 박○○: 전문성을 생각하면 40대 초중반?
- ☞ 진행자: 성별은 어떻게 할까요?
- ☞ 이○○: 여성으로, 다양성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여성 비율이 낮으니까.
- ☞ 사회자: 직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 이○○: 저는 금융영역 전문가 집단이 특히 야권에 부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어려운 분야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고... 금융권, 은행출신이 좋아요.
- ☞ 박○○: 이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금융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문제도 그렇고 그 쪽의 목소리는 늘 많았기에... 그런데 과연 고용창출이나 젊은 세대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 박○○: 직업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이나 활동을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 사회자: 은행원, 노조위원장, 전문상담사 뭐 이런 걸 쪽 쓸 수도 있지요.
- ☞ 이○○: 우리가 전문성을 이야기한 만큼 특정 분야에서 활동할 의원을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상임위까지 생각을 한 거지요.
- ☞ 김○○: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직업이 꼭 엘리트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가요? 전문성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엘리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 박○○: 은행원이 엘리트는 아니지 않나요. 연봉이 좀 높은 거지, 그들도 50 넘으면 고용 불안감에 떨고 있잖아요.
- ☞ 김○○: 저는 중산층보다 아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민층에 가까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중략)
- ☞ 이○○: 진짜 이런 후보가 나오면 뽑고 싶네요.
- ☞ 박○○: 그런데 정말 뽑을까? 이런 후보가 나오면 다른 후보하고 비교하지 않을까요.
- ☞ 김○○: 우리는 지금 당선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뽑는 거니까요.

2) 토의 결과

12개의 모둠에서 완성한 12개의 좋은 국회의원 모습은, 각 모둠의 발표자가 공유하기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번 모둠에서 완성한, 30대 초반의 여성인 여운영 후보는 청년 NGO활동가로 청년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여운영 후보의 이름은 몽양 여운형 선생에

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표성, 정치소신, 화합, 다양성, 정당이라는 기준을 담은 인물이다.

우선 첫 번째 ‘대표성’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다. 이름은 여운영이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 성별은 여성이고, 직업은 1인 미디어, 청년 NGO 활동가이다. 정당은 희망청년당이다. 이 사람이 가진 정치소신은 말 그대로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다.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갖췄다. 청년주거대책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최근 청년층이 가진 직업,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하는 사람이다. 기타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는데, 요양보호시설에서 연령대, 경제력 등 다양한 사람들 만나본 사람으로 그려봤다.

소신 씨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준다는 소신 있는 42세의 여성 후보자이다. 2번 모듬에서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치소신이라는 기준과 다양성을 반영해 소신 씨를 출마시켰다. 시장으로 행정 능력을 갖췄고, 시민운동가로서 시민과의 소통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생 참가자가 발표를 했다.

2조의 좋은 국회의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정치소신이었다. 후보자 이름도 ‘소신’이다. 성은 김씨로 하려고 했는데 다양성이 있어야 하니까 ‘소’씨로 했다. 나이는 42세이다. 모의투표에서 뽑힌 4번 후보의 나이와 같다. 성별은 여자인데, 아직 여성 국회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평등을 꿈꾼다. 직업은 전 성남시장인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남시장으로 행정적 전문성을 갖추고, 그 이전의 시민운동가 경력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장애인 봉사단 대표로 활동했는데, 도덕성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이런 봉사활동 경력도 필요하다. 또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했는데,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등과 관련해서 생활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슬로건은 ‘국민의 세금 국민에게!’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예산 심의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부패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복지 등에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있도록. 학력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왜 국회의원이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희망의 상징인 나희망 씨는 45세 여성이다. 슬로건은 “당선 후에도 변함없는 사람”이다. 나희망 후보는 국가 발전을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세 자녀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국가발전, 정치소신, 전문성, 실천력, 소통능력을 갖고 있다.

나희망 씨, 나이는 45세이다. 45세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또 여자가 트렌드다. 직업은 시민활동가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고, 해외 특파원도 다녀왔다. 현재 아동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하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1남 2녀를 두고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보다는 국가를 대변해야 한다. 정치소신, 실천력, 소통능력, 다양성 등 여러 가치 중에서 소통능력이 부족한데 소신만 있다면 외고집이 될 수도 있다. 당선 후에도 변함없는 사람이 슬로건이다. 당선 전에는 재래시장에서 악수 하자고 하더니, 당선 후에는 얼굴 볼 수 없는 의원이 아니기를 바란다. 특권 내려놓자는 것과 안전한 사회,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했다….

4번 모듈에서에서 출마시킨 김하영 후보는 상생, 소통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실천력을 갖춘 후보이다. 이 모듈에서는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 약자 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후보를 만들었다. 29세의 여성,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사회적기업 지원 등 상생을 위한 실천을 해온 인물이다.

짧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먼저 우리가 뽑은 5가지는 상생 소통능력 다양성, 정치소신, 실천력이다. 다양성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 많은 목소리가 담긴 사회 돼야 한다. 소통능력 부재하면 진정한 다양성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 될 수 있을까? 해서 실천력도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정치인의 능력은 정책을 잘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헬조선이 아닌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조금 더 평평하자 등 평등의 가치를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프로필 주요 경력은, 앞의 덕목에 맞게 짜봤다. 나이는 29세, 여성이다. 우리 사회 약자, 다양성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직업은) 성공한 기업가는 실천력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주요 경력은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본인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한 경험을 넣었다.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젝트는 상생 키워드를 생각해 넣었다. 파워블로거, SNS 파워유저 등은 소통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전다경 후보는 여성, 환경, 장애인인권,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인물이다. 5번 모듬은 전문성, 다양성, 경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 국가발전과 도덕성을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꼽았다. 상생, 공감, 소통 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여성 후보로 그렸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으나, 시민사회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인물이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했다. 전문성 다양성 경력 국가발전 도덕성. 그래서 우리 후보 이름은 전다경(전문성/다양성/경력)이다.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어서 공감, 상생, 소통능력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성이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외도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정치를 포함해 사회 전 분야에 골고루 참여한다. 이제는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이 됐고, 나이는 45세이다. 캐나다나 영국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40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직은 의구심이 든다. 약간의 희망이라면, 개인적으로 청년실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쉬게 하고, 20-30대 청년 중에서 분명한 기준 가진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한다. 전다경 후보의 경력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장애인권분야), 정당 정책연구원(사회적경제위원회), 코이카(가나 파견 봉사), 코트라 회사 노조원, 월드비전 후원회원 등이다. 사회 참여적인 투철한 의식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활동만으로 한계 느껴서 정치 출마하게 됐고, 지역적이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인 다해일 후보는 “엄마가 잘할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마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6번 모듬에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40대 여성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해일 씨를 그려냈다. 소상공인, 평범한 엄마의 대표가 없다는 걸 깨닫고 출마했다. 다양성(퀴터제), 실천력, 전문성, 소통능력, 상생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다해일 후보는 73년 서울 출생이다. 대학 졸업 후 은행 2년 다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아이를 낳고 경력단절이 돼서 가정주부로 살았다. 지역 사회에서 공동육아를 조직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아이들 같이 키웠다. 외벌이 한계를 벗어나보자고 동네빵집을 차렸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빚도 1억 있다.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는데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동시에 들어왔다. 다해일 후보는 동네빵네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문제의식을 갖고 살다보니 내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국회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국회에 소상공인, 평범한 엄마를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 살리자, 공동육아서비스 확충하자, 슬로건은 “엄마가 잘 할게!”이다. 다양성과 전문성에 집중해 봤다. 엄마가 잘 할 수 있는 것, 빵집 주인으로서 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생각했고 소상공인, 엄마가 우리 사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려봤다.

이비전 후보는 이름 그대로 진취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능력과 비전을 갖춘 38세의 여성 후보이다. 입법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출마했다. 직업은 사회적기업 대표이고, 수원시의 재선 시의원이다. 정책비전, 다양성, 도덕성, 갈등조정능력, 경력을 기준으로 그려냈다.

가상의 인물 창조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가지 정책 비전, 다양성, 도덕성, 갈등조정능력, 경력이다. 이름부터 진취적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정책비전이기 때문에 이비전이라고 했다. 38세 여성이다. 논의할 때 중요한 게 단지 38세 여성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갖춘 38세 여성이라서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S전자 생산직에 근무하다가 대기업이 환경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 활동을 했다. 수원시 시의원으로 재선된 경력이 있고, 사회적기업 대표로 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비전 다양성 도덕성 두루 갖춘 인물이다.

평범한 이름을 가진 홍길순 씨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출마했다. 38세 여성으로 소통능력이 뛰어난 심리학과 교수이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참여가 중요한 기준이었고, 소통능력, 책임감, 전문성, 상생의 기준으로 했다.

참여를 전제로 해서 소통능력 책임감 전문성 가진 상생할 수 있는 후보이다. 한국의 보편적인 이름, 홍길순이다. 38세 여성이다. 너무 연륜이 없어도, 파 묻혀서도 안 된다는 기준으로, 우리 나이 평균을 내서 38세로 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부족하다. 행정 능력을 갖췄으면 해서 직업을 시민단체 사무총장으로 했다. 공감 능력도 갖춰야 하니까 ○○대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하다. 또 세 자녀를 둔 베테랑 가정주부이다. 기득권 가진 분들만 나오고 평범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는데, '유럽 자유여행'이란 책을 낸 저자이다. 폭넓은 견문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예산 다루는 걸 고려해서 국회 의정 모니터링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기타 경력으로는 경영학 복수전공이 있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사랑하는 내 친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자' 함이다.

또 한명의 42세 여성 소신 씨가 있다. 2번 모듬과 9번 모듬에서는 이름도 나이도 똑같은 후보를 출마시켰다. 9번 모듬의 소신 후보는 현재 소신제작소라는 시민단체의 소장이다. 상생, 청렴(부패방지), 의정활동 성실성(능력), 소신(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정책 내용이라는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소신 씨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2번 모듬 후보와 이름이 똑같다. 소신이고, 42세, 여성이다. 현재 소신제작소 소장이다. 기준은 상생, 부패방지(청렴), 의정활동 성실성과 능력,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소신), 정책내용 등이다. 그 중에서 부패방지와 소신에 대해 얘기 많이 했다. 소신동에서 희망공부방을 운영했고, 유모차부대의 행동대장으로도 활동했다.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국회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특징이라면 젊은 시절 7급 공무원 시험에 2년간 도전했으나 낙방한 경험이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이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을 거다.

정치개혁,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를 내건 나소통 후보는 29세 여성이다. 이름 그대로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젊은 나이이지만 경제학 박사이고, 일자리만들기포럼 대표, 서울시노숙자대책 위원장,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성 있는 후보로 그렸다.

국민을 위한 소통정치, 나소통 후보이다. 우리 모듬에서는 좋은 국회의원 조건으로 소통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정책비전 제시, 현장중심, 소통능력, 전문성, 정치소신 등. 정책비전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며 감동을 줄 수 있으면서 비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장중심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 전문성에 대해서도 토론했는데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소신은 후보자가 쫓대, 중심을 가지고, 물론 수많은 전문가 의견을 갖되 마지막에는 자기 소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론했다.

위소통 씨는 우리(we)와 소통할 줄 아는 후보이다. 노동인권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현재는 시민운동가 혹은 정당인을 직업으로 소개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시의원도 역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 그렸다.

11조에서 추대한 후보 소개 전에, 좋은 국회의원 어떤 조건인지 6가지 키워드 설명하면 상생, 소통능력, 실천력, 진정성, 전문성, 당선가능성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봤다. 당선이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6가지 조건에 합당한 후보 있기에 소개하겠다. 위소통 씨다. 45세 여성으로 인권변호사로 민변 소속이다. 시민운동가이고, 정당인이기도 하다. 15년 정도 시민운동에 참여해왔다.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경력 18년이다. 지역 내 인권 상담소장으로 10년 활동했다. 시의원으로 4년의 임기를 마쳤다. “소통을 통한 상생, 소통을 통한 대한민국 만들고 싶다. 헬조선 가슴 아프다. 삶의 정치를 통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꿈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게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 나대표 씨는 치킨집 사장이다. 자영업 8년차이고, 빚이 4억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프렌차이즈 갑질 방지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발전, 정당일체감, 중간조정자 역할, 창의성, 도덕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인물이다. 성별과 나이는 비공개인데 경력으로 볼 때, 50대로 추정가능하다.

좋은 국회의원이나 당선 가능한 국회의원이나 얘기하다가 프로필 먼저 정했다. 이름은 나대표, 나이는 50대이다. 직업은 치킨집 인사동 지점을 운영한

다. 빚이 4억 있다. 대출 받아서 차린 분이다. 주요 경력은 치킨 자영업 8년차이다. 두세 번 망해 봤다. 벤처창업(물류업종)도 했다가 망했다. 대기업 과장 희망되직 했다. 프로필만 봐도 공감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은 상가권리금 보장하자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놔다.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들 갑질 막는 일 해내겠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캐치프레이즈를 '서민을 중산층으로, 건강한 중산층,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고 정했다. 당선 가능성을 위해 좀 타협한 것이긴 하다.

[그림 IV-7]은 시민토론회 참가자들이 완성한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표 IV-5]은 앞에 소개한 12개 모듬의 상상하기 결과물인 시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림 IV-7] 상상하기 결과물: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표 IV-5] 상상하기 모듬토론 결과

	이름	정치를 하는 이유	직업	주요경력 · 기타 사항	기준
1	여운영 30 여성	- 청년 파이팅! - 청년 생활권, 인권 대변! - 틀 파괴!	1인 미디어 - 청년 NGO 활동가 - 희망청년당	○○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 청년주거대책위원회(위원장)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대표성 - 정치소신 - 화합 - 다양성 - 정당
2	소신 42 여성	- 국민의 세금 국민에게! - 국민이 하늘입니다!	전 성남시장	- 시민운동가 - 장애인 봉사단 대표 -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 진정성 - 도덕성 - 다양성 - 소통능력 - 정치소신
3	나희망 45 여성	“당선 후에도 변함없는 사람” - 특권 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 투명한 사회 실현!	- 시민활동가 - 박사 - 기혼, 1남 1녀	- 전 언론인 출신(해외 특파원) - 아동복지재단 이사 - 학부모회 운영위원 부회장	- 국가발전 - 정치소신 - 전문성 - 실천력 - 소통능력
4	김하영 29 여성	- 헬조선이 아닌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 조금 더 평평하게 - 유권자가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 성공한 기업가 000당 후보 4년제 대학 졸업	- 본인 기업 코스닥 상장 -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젝트 - 지역 청년 공동체 활동 조직 - 파워 SNS 유저	- 상생 - 소통능력 - 다양성 - 정치소신 - 실천력

	이름	정치를 하는 이유	직업	주요경력 · 기타 사항	기준
5	전다경 45 여성	♥	• NGO활동가 (여성환경연대)	• 시민단체 활동가(장애인인권) • 정당정책연구원(사회적경제위원회) • KOICA 가나 파견 봉사 • KOTRA 회사노조원 • 월드비전 후원회원	• 전문성 • 다양성 • 경력 • 국가발전 • 도덕성
6	다해일 45 여성	• "엄마가 잘할게"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 활성화! •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 자영업(빵집) • 가정주부 • 은행원(출산 전)	• 동네빵네협동조합 결성 • 사회적경제위원회 이사 • 지역사회 봉사활동(공동육아공동체 참여) • 주택담보대출(1억) • 1남1녀	• 다양성(쿼터제) • 실천력 • 전문성 • 소통능력 • 상생
7	이비전 38 여성	• 입법 활동을 통한 최소한의 정의 실현	• 사회적기업 대표	• 지역사회활동(환경운동) • 수원시의원 재선 • S사 생산직 근무 • 미혼	• 정책 비전 • 다양성 • 도덕성 • 갈등조절능력 • 경력
8	홍길순 38 여성	• 우리의 행복한 삶과 사랑하는 내 친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 시민단체 사무총장 • ○○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 세 자녀를 둔 베테랑 가정주부 • <유럽자유여행> 책 저자 • 국회의정보니터링단 운영위원 • 경영학 복수전공	• 참여 • 소통능력 • 책임감 • 전문성 • 상생

	이름	정치를 하는 이유	직업	주요경력 · 기타 사항	기준
9	소신 42 여성	• 젊은이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심어주고 싶어서 •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일조한다 • 생각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 소신제작소 소장	• 소신동 희망공부방 운영 • 유모차부대 행동 대장 • 김** 의원 비서관 • 7급 공무원 2년 도전	• 상생 • 청렴(부패방지) • 의정활동 성실성, 능력 • 소신 • 정책 내용
10	나소통 29 여성	• 정치개혁, 국민을 위한 소통정치	• 희망정치 연구소장	• 캘리포니아주립대(경제학 박사) • 경제민주화 실천연대 상임위원 • 일자리만들기포럼 대표 • 서울시노숙자대책 위원장	• 정책비전제시 • 소통능력 • 전문성 • 현장중심 • 정치소신
11	위소통 45 여성	• “삶의 정치로 떠나고 싶지 않은 꿈의 나라, 제가 만들겠습니다” • 소통을 통한 상생! • 소통을 통한 대한민국!	• 인권변호사(민변) • 시민운동가 • 정당인	• 시민운동가 15년 •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 18년 • 지역 인권법률상담 소장 10년 • 시의원 4년 • ○○당 위원장 3년	• 상생 • 소통능력 • 실천력 • 진정성 • 전문성
12	나대표 성별, 나이 관계 없음 (50대)	• 서민을 중산층으로! 건강한 중산층, 행복한 대한민국	• 치킨집 운영 (인사동 지점)	• 치킨 자영업 8년차 • 벤처창업(물류업) • 대기업 과장 희망퇴직 • 빚 4억 〈주요공약〉 • 상가권리금임대차보호법개정 • 대기업프랜차이즈갑질방지법	• 국가발전 • 정당일체감 • 중간조정자역할 • 창의성 • 도덕성

5. 공유하기

[표 IV-6] 공유하기

활동목적	모든 테이블에서 나온 우리의 상상과 요구를 확인한다.
진행순서	① 발표하기, 논의하기 결과를 간략하게 공유한다. 상상하기를 통해 그려 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소개한다. ② 전체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이 작성한 요구, 토론 참가 소감을 들어본다. ③ 우리의 요구를 적은 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고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1000action/)에 공유한다.

1) 공유의 시간

공유의 시간은 앞서 나눈 모둠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참가자들과 이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더 많은 이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토론회는 두 번의 공유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공유의 시간은 논의하기 단계를 마치고 5분간 진행했다. 현장에서 기록 프로그램에 입력된 발견하기, 논의하기 결과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해 그래프로 작성하고, 참가자들의 선택을 확인했다. 짧은 공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금씩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둠토론의 논의를 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공유의 시간은 토론의 마무리 단계인 상상하기를 마치고 가졌다. 전체 사회자가 모둠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진행했다. 한 모둠당 5분 이내로 발표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각 모듬의 상상하기 결과물을 사진 촬영해서 노트북으로 전송하고, 대형 스크린을 사용해 모든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실 등 소규모 토론이라면 상상하기 그림판을 들고 발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시민의 요구 작성하기

노란테이블은 시민들이 직접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현실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 요구를 모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론 방법이다.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에는 시민들의 실천 약속과 요구를 적는 요구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모아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공유하기 시간에 작성하고, 결과물을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⁶⁾

이제 노란테이블을 마칠 순서이다. 전체 사회자는 토론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참가자들의 요구를 공유하고, 토론 참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한다.

3) 패널토론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각 정당의 신진 정치인과 정치평론가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들은 토론회 결과를 듣고 패널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석 클래스 스튜디오 대표(새누리당)는 “여러 장점을 합쳐서 하나의 뛰어난 사람을 만들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모자이크식 스펙을 갖춘다고 해서 과연 뽑힐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며, “현실에 없는 국회의원을 찾는 것 보다는 주변에서 좋은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새정치민주연합)은 “토론회 결과를 보며 오늘 참여한 분들이 정치인의 소명과 소명의식을 갈망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정치는 조정과 타협이라고 본다. 수많은 의견과 입장을 정치가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정의당)는 “좋은 정치인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6)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1000action/>”이다.

줄 아는 사람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토론 결과를 살펴보니 시민 생활에 와 닿는 지혜와 정치의 전문성 이 두 가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는 전문분야 이외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생활적인 것은 권력을 다루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약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정당)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결과를 보니, 시민들이 기대하는 영역은 재벌개혁, 노동개혁과 같은 큰 의제가 아니라 생활과 환경의 작은 변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뭔가 크게 바꿔줄 거라는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다”며, “좋은 정치인이란 시민의 요구를 받아 실천하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주제를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좋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민을 무서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V. 시사점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V. 시사점

노란테이블2의 논의 결과와 토론 참여 효과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 토론 참여자들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연령, 성별,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총 10명을 선정했다. 인터뷰는 2016년 1월 6일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 마포구의 ‘미디어카페 후’에서 진행되었다. 이관후 연구자문위원의 사회로 노란테이블 참여 계기, 토론 결과의 의미,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 V-1] 노란테이블 FGI 참가자 정보

구분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
A	20대	여성	대구	대학원생(경영학 박사과정)
B	20대	남성	경기	대학생(정치외교학과)
C	20대	남성	부산	대학생(디자인학과)
D	30대	여성	서울	교사(기간제 근로자)
E	30대	남성	서울	회사원
F	40대	여성	경기	연구원(환경정책 연구)
G	40대	남성	경기	회사원(지역 시민단체 활동)
H	50대	여성	서울	언론인(기자, 여성학 박사과정)
I	50대	남성	강원	강사(문화정책 연구)
J	60대	남성	서울	택시기사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노란테이블2 시민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회, 국회의원들의 문제로 소통부족, 가진 자들의 국회의원, 근시안적 정책, 지역주의를 지적했다. 좋은 국회의

원의 기준으로는 다양성, 소통능력, 전문성, 정치소신, 상생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런 좋은 기준을 반영한 인물을 그려본 작업의 결과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30대 후반의 여성, 주부, 엄마로 요약할 수 있다.

12개 모듈에서 그려 낸 좋은 국회의원 중에서 11명은 여성이었다. FGI 참가자들은 다양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결과를 해석했다. 법률가, 교수, 기업인 출신의 남성 중심의 국회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삶을 경험한 이들로 채워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은 그 상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다양성 제고 전략으로서 여성 국회의원 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지역, 제3정당 등 여러 측면에서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 우리 사회에 가장 흔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것 같다
...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봤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40대 초반 여성, 아이가 있는 ... 그런 것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대부분 남자에 정당 경력 내세운 분들이 많았다. 작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 나오면 좋겠다.

H: 프랑스나 캐나다에서 남녀 동수, 내각 반반 했다. 그 전략이 여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건 아니다. 철학적 논리가 많지만, 그 사회의 다양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했을 때 여성과 남성을 반반씩 올려서 정치에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본거다. 정치 분야도 여성 같이 하자는 것이다.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해야 된다.

평범한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와 대표자라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에 대한 선망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다수가 공감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다는 의견이었다.

C: 사람들 생각을 투영한다고 생각한다. 유리천장 등 ... 그 나이 대에 여성이면 자기희생도 있을 것이고,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현실에서는 여성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H: 여기서 여성 요구하면서, 현실에 가보면 여성이 운동하면 각 지역별로 NGO 하는 사람들, 너는 왜 집에서 집안일 안하고 나가서 그러느냐는 이야기 듣는 현실이다.

논의는 국회의원, 정치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이어졌다. FGI 참가자들의 발언과 토론회 당시 참가자들의 발언을 검토해 보면 법률가, 교수 등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특정 직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험이나 성과를 가진 인물을 의미를 가리키기도 한다.

E: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선거 기억이 난다. 반에서 착하고 활발한 애보다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애가 반장이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투표장에 가면 기대 심리, 이 사람이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더 잘 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정당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법관 출신이나 사람들에게 공적인 신뢰감 주는 사람을 후보자로 올리는 것 같다.

F: 사람들은 은연중에 ... 리더십,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권위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최소한의 특정 분야에서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들 의견 들으면서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그런 개념보다는 권위를 추구하고 바란다는 느낌을 받았다.

FGI 참가자 D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특정 직업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D: 여자이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바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박사나 언론인 출신이기를 바란다. ... 전문성은 본인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면 굳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가, 반문이 든다. 학교에서 일 할 때도, 교사 혼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뽑아서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I는 국회의원 본래의 역할을 고민할 때 국가 발전이라는 기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국가발전은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론이 아니라, 지역 단위보다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었다. 토론회에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으로 다양성, 전문성 등을 논의했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역 발전만을 강조하고, 유권자들도 국회의원을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I: 우리가 이야기한 국가발전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나. 대부분 지역사회 발전 공약 들고 나오거나, 내가 지역에 이러이러한 기여했다는 걸 많이 들고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라고 하지 않나. 제일 중요하게 제도를 만드는 거다, 그것이 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나라 살림 심의하는 것인데. 지역 예산을 그만큼 갖고 온다는 건 다른 데 가야할 걸 갖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관이나 국가정책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서 국가발전은 나라가 경제력이 커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소신이라는 기준은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제시한 공약이나 정치적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의 측면에서 실천력이라는 기준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G: 실천력은 정치소신이란 이어져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바꾸겠

다, 새 정치 하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 들어가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입의원 같고 5선 의원들은 임원 같은 느낌이다. (선거 때는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결국 자기 주장은 다 꺾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소신 이야기 한 것 같다.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1) 노란테이블의 의미

(1) 참가 계기

노란테이블 참가 신청자 중에는 미래에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10대 청소년도 있고, 정치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싶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고 싶다고 참가 신청 이유를 밝힌 이들도 많았다. FGI 참가자들도 이와 유사한 참가 계기를 말했다. 이들은 대체로 평소 시민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평소 주변에 정치 이야기를 같이 할 사람이나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에, 노란테이블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고 참가 계기를 밝혔다.

B: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외과 학생들끼리도 정치 이야기 안하려고 한다. 서로의 성향도 있고, 자기가 정외과 왜 왔는지 이유 없는 경우도 있고...

C: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은 갈증이 있었는데 노란테이블을 발견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D: 20대에는 ... 한국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고 ...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

볼까 생각은 못하고 비판만 했었다. ... 30대 들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제도적인 불편함,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낀 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먼저 행동에 옮겨야 아이들도 할 것 같아서 ... 참여했다.

(2) 공론장으로서의 노란테이블

노란테이블은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토론의 장이다. FGI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의 이런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 중심의 토론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란테이블 참가 계기에서 밝힌 것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 토론을 벌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B: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C: 토론을 해서 굳이 좋은 국회의원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니깐. 굳이 좋은 후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토론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I: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가 신청을 했다. 다양한 이야기 속에 같은 방향, 공통분모 찾아낼 수 있을까 궁금했다. 이전에 시민사회운동 일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영논리였던 것 같다. 내가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 주장은 선하고. 내 주장 받아들여져야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모의투표 할 때, (한국정치의 문제, 좋은 정치인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모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사람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4명 골고루 나왔다. 마지막 선택할 때는 기준이 다 다르구나, 그게 굉장히 신선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3)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노란테이블

또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평소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또는 모순을 발견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거 정보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A: 세미나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었던 것 같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면 그냥 봤는데... 세미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토론이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서 정말 좋은 시민이 많이 나와야 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F: 우리 조에서 빵집 아주머니 탄생했다. 그 때 의견을 많이 냈었던 것 같다. 우리 조원이 앞에 나가서 발표를 잘 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지역에 나왔을 때 과연 나는 저 사람을 투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나오면 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H: 공보물 읽는데, 그런 것 많이 봤지만 이걸 어떻게 뽑을까 당 보고 그냥 하지 않나,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놀랐던 건 참가자들이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서로 훈련시켰다. '이 사람 이걸 뺄이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배울 수 있었다는 거. ... 정치 교육 자체가 부재한 곳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훈련을 했다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어야 하는데. 또 다양하게 더 길게. 그리고 후보자 안 불러도 된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다. 마음 놓고 욕해도 되고.

(4) 평등한 의사소통의 공간

노란테이블은 모든 참가자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배우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을 지향한다. 노란테이블의 진행 순서와 토론 톨킷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FGI 참가자들은 토론툴킷의 사용과 단계별 구성이 논의를 정형화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모두가 동등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갖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적 대화를 했다는 점, 또 진행자는 물론 참가자들도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A: 진행 방식, 툴킷 토론 처음이었다. 정형화된 느낌 있지만 모두의 의견 모아지는 데 의미가 있었다. 패널토론 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 많았던 게 좋았다.

B: 토론할 때, 너무 한쪽 주장에만 매몰 되서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 하는 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진행자가 통제하고 다른 시민 분들이 중재를 잘 해주셨다.

C: 처음에 시간 제한, 툴킷이 있어서 너무 이야기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H: 토론 시간 제한하는 것 ... 좋았다. 우리 팀도 골고루 서로 의견을, 자기 의견을 절제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성공적이었다.

2) 한국정치와 토의민주주의

한국 정치 현실과 시민의 정치참여 문제 논의는 정치교육, 토론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1) 소통이 부재한 한국 정치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 반대편에는 다양한 계층, 지역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치인이 부재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러한 지점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데서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 막는 정치 구조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I: 현실과 이상의 차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0% 이상,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까지 하면 60% 넘어설 텐데…. 실질적으로 30대는 극소수이다. 50대 다음에 40대가 아니라 60대이고, 그 다음이 40대이더라. 바라는 것과 현실이 일치가 안 되는데 … 여기서 정치 불신이 생기는 것 같다.

G: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여성 장관, 총리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 그 누구도 소신 있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시민토론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선거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FGI 참가자들도 1인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F: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지역당 모임을 나가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 하나도 없다. 풀뿌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치 공학적인 논리와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바꿔보자. 지역, 공동체 살리는 운동 확장 선에서 그런 모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만 뽑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면 (변화가 어렵다).

I: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과 실제 총선에 주는 영향은 달리 봐야 하지 않겠나. … 일단 4년 동안 맡기고 잘못하면 바꾸고 그게 민주주의의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닌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많은 데 이게 선택의 장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진영 논리,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이용하는 정당 정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양당 구조가 고착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제3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G: (요즘 야당이 하는 걸 보면) 호남 민심 갖고 오면 그게 진정성 있고 정치소신 있는 건가 의문이 든다. (야당은) 왜 총선 때 호남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충청도로 가나. 그 다음에 자기 표가 안 되는 경상도로, 반대쪽(여당)에서는 (마지막에) 전라도로 간다. 그런 게 소신이나, 진정성이나. 소통능력 자체가 의심이 된다. 일방 소통밖에 안 된다. 정말 다양성이 필요하다.

D: 진보냐 보수냐 따져서 이야기하는 게 싫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좋을 뿐이다. 굳이 나누고 싶진 않다

시민토론회, 인터뷰 결과는 노란테이블에서 정당 정치의 문제나 선거제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을지라도, 유권자들이 현재 정치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 현상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성과 소통능력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 제도와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FGI 참가자 중에는 노란테이블 참가 이후 지역의 정당 행사나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C: ○○당에서 우리당 비판해 달라 하면서, 토론회 같은 행사를 하더라. 타운홀 미팅 같은 거였는데 ... 정말 실망했다. 모인 다른 사람들도 진행이나 구성도 잘 안됐고,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한 모임이었다...

F: 우리 동네 의정보고회 현수막 붙어 있어서 찾아가봤다. 지역 의원들이 국회 의원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한건 데, 현역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왔다. 당, 시민단체 다 왔는데 ... 국회의원들 와서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지역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나.

참가자들은 참여를 통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정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학교나 일상에서 정치적 참여나 훈련을 받을 기회

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H: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받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큰 아이는 영국에서 8년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만 13세짜리 아시아 아이가 청소년 국회의원(youth parliament)에 출마했다. 명함, 캠페인 비용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줬다... 정치라는 게 각자의 자리에서 웰빙(well-being)을 이루려고 하는 게 정치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정치가 일상적인 것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는 정치 기반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 키우는 아줌마가 무슨 정치를 한다 그래, 그렇게 나오지 않나.

I: 초중고 학생회 뽑을 때 후보자들이 공약 내거는 데, 그 이후의 피드백이 없다. 이벤트로 끝나고 만다. 교사들이 학생회 선거를 아이들 놀이로 보게 하고, 당선자 공약은 묵박지르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내가 중학교 운영위원장 했을 때, 학생회 선거에 나온 3명의 후보가 학교 축제를 선거 공약으로 걸었다. 나는 운영위원장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무엇이 바뀌었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도 투표하면 바뀐다는 걸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토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가능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정치 토론과 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토론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 문화 확산, 정치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건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아이들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전혀 다른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이고,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이고.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 토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 인가.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기성세대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가 희망을 만들려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I: 일거에 변화 발전시킬 수는 있고, 고리 하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 모델 내지는 합리적 모델.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의 정치참여,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선거 공보물 이외에 관련 정보를 얻을 만한 지역 언론도, 토론의 장도 없다는 것이다. 노란테이블과 같은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도 끌어 올리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채널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A: 노란테이블이 지역에도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상호의존성 큰 문화인 것 같다. 누가 이야기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온고지신도 있지만... 자기 의견 표현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민단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F: 총선 앞두고 지역에서 그런 소통 통로가 전혀 없다. 우리는 그냥 집으로 배달된 후보자 명단만 보고 결정하게 된다. 공보물만 보고 결정하게 된다. 서로간의 격론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그래서 알려진 사람들, 기존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지역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 그래서 희망제작소가 하나의 예로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국회의원도 섭외하고 해서 타운홀 미팅이든, 지역에서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어떨겠나. 지역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끔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민 교육, 지역 사회 중심의 토론 캠페인 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 참여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I: 새로운 형태의 공론을 만들어내는 ... 권위 있는 공론장, 시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만드는 공론장, 그런 걸 하고 싶다.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로 후보자들을 호출해서 도대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고 싶냐, 뭘 준비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확보해내고 그런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한 참가자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조직이 있지만, 정치를 주제로 토론하는 문화가 쉽게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커뮤니티 중심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 기관에서 주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 거주하는 아파트가 5천 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엄청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있다. 문제는 거기서 정치 이야기 아무도 안한다. 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냐고 할 것이다. 자기들의 권익을 찾을 때는 뚝뚝 뭉쳐서 의원들에게 의견도 전달하지만.... 정치라는 게 동네에서 이런 모임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정치학자들도 정치 이야기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만들기보다는 선관위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여러 차원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적 자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J: 그동안 수십 년, 바꾸는 데까지 다 바뀌었다. 결국 그 모양이다. 이제는 어느 놈이 해도 마찬가지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바뀐다는 건, 저 친구 나하고 고향이 같아. 학교, 성씨가 같아, 이런데 치우치지 말고 진짜 냉철하게 검증하고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진짜 검증하고 그런 걸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FGI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해봄직한 정치참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등학교 교사인 D씨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투표의 의미를 알려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D: 이번에 고3 수능 본 아이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다른 건 몰라

도 제발 투표를 하라고 이야기한다. ... 투표로 삶이 바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를 꼭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면에서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다. 너희 세대가 이끌어갈 너희의 나라이다. 투표를 꼭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투표와 교육적 측면에서의 권장인 것 같다.

지역의 마을 공동체 또는 시민 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G, F 씨는 지역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부터 지역 정치 활성화 및 정치인이 양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G: 4년 동안 지역을 꾸준히 돌볼 수 있는 정치인 생길 수 있도록 시민단체, 마을공동체에서 여야를 떠나서 순수하게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F: 나는 시민사회에 속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바라 보면서 내 주변부터 소소하게나마 정치를 현실화하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에서든 참여하고.

20대 참가자인 B, C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 참여, '시민당' 창당 등을 통해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상황이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고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겨봐야 이기는 법도 아는 거고. 항상 약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센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물론 정당, 시민사회 역할 다르지만 그래도 정당 정치니까. 시민사회가 이야기해도 뭔가 직접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면 ... 시민당을 창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C: 매년 국회가 현역 교체율이 높다고 하는데, 50%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치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 그래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대통령 말처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지만 참여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번 총선이) 첫 투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선거운동도 참여해보고 싶고. 그런 입장에서 작은 참여가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표 V-2] 노란테이블 FGI 결과 요약

주제	내용
참가 계기	▪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임 ▪ 일상에서 정치적 대화를 나눌 사람이나 공간을 찾기 어려움 ▪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음
개인적 변화	▪ 기존의 투표 선택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과 의미를 반성함 ▪ 다양한 생각을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주변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됨
노란테이블의 의미	▪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적 효과를 냄 ▪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음 ▪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 참여,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음
토론결과와 한국정치 현실	▪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정치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느낌 ▪ 다양성, 대표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음 ▪ 진영 논리,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이용하는 정당 구조도 문제임
정치토론 및 교육의 부재	▪ 정치인이나 정당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음 ▪ 지역에서 지역 언론 등 정치적 소통 통로가 부재함 ▪ 초·중·고 교육에서 정치 교육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경험하기 어려움
토론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론 문화 확산, 정치교육 필요 ▪ 시민단체, 지역 사회 중심의 토론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소통 채널을 늘려나가야 함 ▪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확산 어려울 수 있음, 선관위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한 토론문화, 정치교육 확산 필요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1) 시민 정치참여의 현실과 토의민주주의

최근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뒤 27개 영역 가운데 25개 영역에서 ‘우려’ 및 ‘(개선)권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집회 자유’와 관련해 위원회는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별 사용 등 평화로운 집회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세영, 2015.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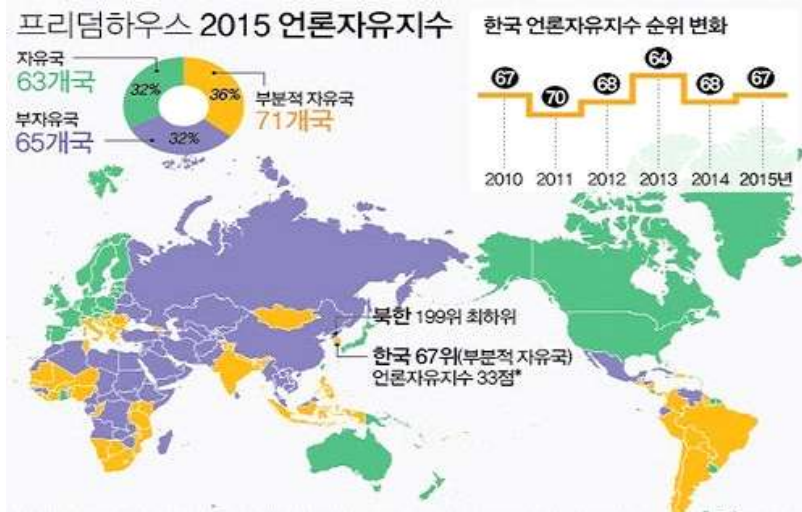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지수를 평가해 발표하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2015년 발표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33점으로 전체 199개국 중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공동 67위이고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Freedom House, 2015).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한 포털의 인터넷 공론장은 정치·사회 의제 토론의 장이자 권력 감시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자유(freedom on the net)도 2011년 ‘자유로운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곧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시민들의 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장집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 공고화 단계에 이르러서 오히려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V-1]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지수(2015년)

(단위: %)



자료: 연합뉴스(2015.4.29.).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 정치 캠페인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그 답을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deliberation democracy)에서 찾고자 했다. 공적 사안,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방식이고, 지금 한국정치에 꼭 필요한 시민 정치참여의 방법일 것이다.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 답은 시민이 직접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참여의 민주주의는 기실 다양하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주성수는 시민참여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로 나누고, 그 중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에 주목한다(주성수, 2006; 2007). 참여민주주의는 ‘시민 각자가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관련되는 공동체의 규율과 구제를 형성하는 일에 관여하는 과정’이다.

직접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는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대표에게 상당한 접근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체제’, 혹은 ‘대의정부 하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적인 집무를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주성수, 2006: 81-82).

심의민주주의는 ‘공동체 의사결정의 심의적 과정에 정보를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개방적이고 신중한 토의를 전제한다(주성수, 2006: 58-59). 심의민주주의는 다시 시민포럼, 국민패널, 이슈포럼,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기획배심제, 공론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시민포럼이며, 지속적인 토론 모임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의 기반이 취약하다. 그리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참여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대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서 정치에 대한 시민참여가 장기간 결핍되었고, 그것이 대표성을 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의 활성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공론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시민사회의 주요 자산은 제도 정치권에 흡수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여민주주의 1.0의 실험은 시민참여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민주주의로 판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시민포럼, 국민패널 같은 제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배심제 역시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의 등장과 더불어 제도 설계와 시행 단계에서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단계로 시민들의 토론문화가 질적, 양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토론을 제대로 학습하고 경험할 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 단기적으로 모두 토의민주주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적 활동 활성화, 정치참여의 확산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언어적 활동,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V-2]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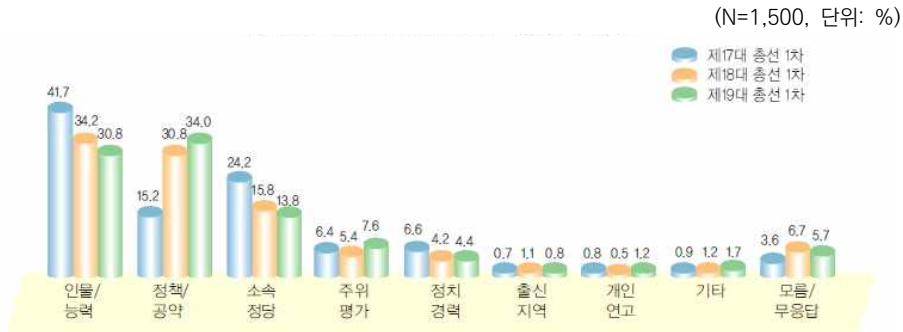
주: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대중이 모여 정치,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 17세기 중반 찰스 2세는 불만 세력들이 왕의 권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장소라며, 커피 하우스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커피하우스, 자유로운 시민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2) 시민토론의 기대효과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왔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제19대 총선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정책/공약’(34.0%), ‘인물/능력’(30.8%)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소속정당’(13.8%), ‘주위 평가’(7.6%), ‘정치경력’(4.4%), ‘개

인적 연고'(1.2%), '출신 지역'(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선거와 비교할 때 '인물/능력' 고려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정책/공약'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6).

[그림 V-3]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계층별 분석(%)		사례수	인물/능력	정책/공약	소속 정당	주위의 평가	정치경력
전체		(1,500)	30.8	34.0	13.8	7.6	4.4
연령별	20대이하	(267)	19.7	46.4	12.9	13.2	2.9
	30대	(321)	27.7	36.6	12.5	9.3	5.3
	40대	(333)	31.5	38.5	17.4	4.4	1.4
	50대	(281)	35.7	30.7	13.8	5.4	5.4
	60대 이상	(298)	38.8	18.0	11.7	6.2	7.3
직업별	화이트칼라	(343)	30.7	37.4	19.9	5.1	0.6
	블루칼라	(136)	22.8	26.6	13.1	8.5	15.6
	자영업	(234)	36.8	32.3	13.4	5.5	3.6
	농림수산업	(37)	35.7	23.5	16.7	5.8	2.2
	주부	(433)	29.1	34.8	11.5	8.1	4.8
	학생	(144)	23.5	50.2	6.7	12.9	3.4
	기타/무직	(173)	38.8	21.7	13.4	9.2	5.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1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19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유권자들이 지지후보 결정 시 응답자의 78.9%가 정책과 공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후보 간의 정책적 차이 정도 인식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응답은 49.0%, 차이가 없었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 공약에 유권자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49.3%, 반영되지 않았

다는 답변은 50.8%로 조사되었다(정희옥, 2012).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간 공약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지지후보 결정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투표행태의 지배요인으로 지역주의, 정당소속감, 후보자 평가, 이슈 평가 기준이 논의되어 왔다. 19대 총선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선거인만큼 정치지도자(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이현출, 2014; 장승진, 2012; 김원동, 2012; 이승협 2012 등). 앞서 살펴본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서 투표결정 요인으로 출신 지역을 꼽는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지역주의가 주요 변수임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지역주의가 ‘출신지’를 중심으로 지역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근거했다면, 이제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강원택, 2012: 25).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의 디자인, 이미지, 공약, 현안, 채널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부문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현안보다는 지역 현안을 강조하거나 인물의 능력을 강조한 후보가, 더 많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후보가 높은 당선 확률을 보였다(조희정 외, 2014). 총선과 지방선거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지후보 결정에 객관적인 공약, 경력 이외에 메시지 제시 방식이나 전략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민토론은 기존 여론조사나 연구처럼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왜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덕적이고 소통능력이 뛰어나지만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없는 후보’와 ‘전과가 있지만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고 학력이 좋은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역구 민원과 예산 확보에 실적이 있지만 권위적인 후보’와 ‘청렴하고 소탈하지만 지역구 활동보다 국회 업무에 충실한 후보’ 중에서는 누가 더 좋은 국회의원일까. 노란테이블2 시민토론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런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는 시민이 생각하는 좋은 대표의 기준,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민토론의 기대효과는

첫째, 후보 선택의 기준을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 타인의 선택 기준을 듣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선택 기준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거리두기를 통한 성찰적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대표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정책이나 인물, 도덕성과 능력 어떤 기준이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 시민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성찰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에 큰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후보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공무원 출신의 정책 전문가와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가 중에서 누가 더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을 통해 국회의원의 본래 역할과 그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선거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토론을 통해 각자의 선택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각 정당의 공천 과정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노란테이블을 계기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정치 토론, 정당 활동, 집회 참여 등 투표 이외의 보다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에필로그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공간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해도 주변에 함께 토론할 사람을 찾기 어렵고, 지역에서도 소통의 채널이 부재하다는 이야기는 ‘시민의 낮은 정치참여’ 문제가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보다 마땅한 정치참여 통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다. 토론의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정치적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과 시각의 다양성을 체험했으며, 이런 토론의 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었다.

좋은 대표, 좋은 정치의 모습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노란테이블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똑같은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선택의 이유와 기준은 다양했다. 선택한 기준은 같지만, 지지 후보는 다른 경우도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란테이블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공통의 지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란테이블은 시민토론의 장이면서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인터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대중들이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 말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시민 사회에서, 시민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정치 토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참여와 합리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

‘노란테이블2’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국회의원의 상을 만드는 자리로 기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노란테이블보를 접을 필요는 없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누가

좋은 대표인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토론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바라는 기준에 충실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다음엔 누가 ‘좋은 대통령’인지, 그 다음엔 누가 ‘좋은 시장’인지 노란테이블 위에서 토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단행본

- 유동걸 (2012), 『토론의 전사 2: 디베이트의 방법을 찾다』, 서울: 해냄에듀.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주성수 (2007),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Ⅰ 논문

-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18(2), 5-38.
김원동 (2012), “19대 총선과 강원도민의 투표행위”, 『지역사회학』, 14(1), 237-281.
이승협 (2012), “19대 총선을 통해 본 대구경북의 지역주의와 권력의 물질성”, 『지역사회학』, 14(1), 209-235.
이현출 (2014), “총선 투표선택과 정치지도자 요인”, 『의정연구』, 20(1), 170-198.
장승진 (2012), “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5), 99-120.
정희옥 (2012),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11(2), 125-155.
조희정 외 (2014),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제공 정보와 홍보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정당학회보』, 13(3), 123-156.

Ⅰ 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Ⅰ 관련 기사

- 연합뉴스, “프리덤하우스 2015 언론자유지수”, 『연합뉴스』, 2015.4.29.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50429002700044&input=1363m>(최종접속일: 2016.4.22.)
이세영, “박근혜정부 2년 10개월...민주주의, 껌데기만 남았다”, 『한겨레』,

2015.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8.html>(최종접속
일: 2016.4.22.)

이종태, “비겁한 정치에 언제까지 ‘올인’?”, 『시사IN』 434호, 2016.1.13.

Ⅰ 기타

이관후 · 이원재,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356>(최종접속일: 2016.4.28.)

희망제작소,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토글 PDF파일
내려받기”. <http://www.makehope.org/?p=33501>(최종접속일: 2016.4.28.)
노란테이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1000action/>(최종접속
일: 2016.4.28.)

Freedom House, 2015, “FREEDOM IN THE WORLD 2015”.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5#.VstJU32LSUk>(최종접속일: 2016.4.22.)

부록

부록 1. 노란테이블2 언론보도 목록

- 김난영, “시민들이 뽑은 이상적인 국회의원...’40대·여성·시민운동가’”, 『뉴시스』, 2015.11.0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7_0010399856&cID=10201&pID=10200)
- 배현진, “20대 국회의원은 누가?’...시민 100인 원탁토론 개최”, 『뉴시스』, 2015.11.0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5_0010395644&cID=10201&pID=10200)
- 송호진, “당신은 누구를 뽑고 싶나요?”, 『한겨레21』, 1087호, 2015.11.18.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686.html)
- 송호진, “양당구도에서는 아무리 해매도 100석”, 『한겨레21』, 1083호, 2015.10.19.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500.html)
- 송호진, “좋은 정치를 바라는 100인을 모읍니다”, 『한겨레21』, 1080호, 2015.9.23.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383.html)
- 여성신문 온라인뉴스팀, “내년 총선서 여의도 보낼 국회의원은 ‘40대·여성·시민운동가’”, 『여성신문』, 2015.11.07.
(<http://www.womennews.co.kr/news/88293#.Vp3xxWdumM8>)
- 유동걸, “〈어셈블리〉로 새로운 정치의 문 열어볼까?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면서”, 『오마이뉴스』, 2015.10.04. (<http://omn.kr/fdok>)
- 이관후, “간섭합시다, 적극적으로”, 『한겨레21』, 1080호, 2015.9.23.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384.html)
- 이관후, “남의 신발 신어본 국회의원도 보고 싶다”, 『프레시안』, 2016.01.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897>)
- 이원재, “(시론)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뉴스토마토』, 2016.02.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23188>)

조규선, “[시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충청투데이』, 2015.11.26.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41338>)

최형미, “정치적으로 투명한 여성들 여의도로 보내야죠”, 『여성신문』,
2015.11.14.(<http://www.womennews.co.kr/news/88440>)

부록 2.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후원자 명단

희망제작소는 노란테이블2와 함께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 시민토론회에서 모아진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시민이 주인공인 노란테이블2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이 있었기에 진행될 수 있었다.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3일간 진행된 본 프로젝트의 후원자수는 120명이었고, 후원 금액은 1,527,610원이었다. 후원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약속한대로 후원자들의 이름(또는 별명)을 여기에 신는다.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프로젝트 관련 글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페이지(<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356>)에서 다시 읽을 수 있다.

I 연재 목록

- 1화. 당신은 어떤 국회의원을 원하십니까?(2015.10.13.)
- 2화. ‘실패하지 않는 투표법’ 정치경력 22년 보좌관에게 듣는다(2015.10.16.)
- 3화. 지역 찾아와 악수 청하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일까요?(2015.10.20.)
- 4화. 대통령의 형이 좋은 국회의원?(2015.10.24.)
- 5화. 청년비례대표는 벼락출세 조장(2015.10.27.)
- 6화. 응답하라, 좋은 정치(2015.10.30.)
- 7화. 11월 7일, 진짜 토론이 시작된다(2015.11.4.)
- 8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일까요?(2015.11.13.)

| 스토리펀딩 후원자

Agnes	고사리	박하사탕
bluetop	공짜없다	블루체리파이
brown	과학도사	사랑나무
courtney	관계자	상호씨
Eagles	관람불가	샤우트
evenstar	광고홍보 Storybeen	서정
HWANG JUNG JIN	광야	세모네모
ILoveRM	김다감	세훈예준맘
ILoveRM	김병관	순수sk
ksycooky	김복자	안상원
les	김선옥	알랍_웨웨
nsimmani	김종인	애니멀스피릿
nunjari	까칠돼지	야옹이물고기
RG	깐깐한 아줌마	양파
Sanghoon Jeon	깨미	얼음양
skylock	나무	엄마꽃
SlowLife	나미네	오이소주
spr	나야나	왕방산호랑이
Ung	노현경	외워두세요
Vv리엘vV	누리	우군
youngman	닉내임	윤도환
감로수	다루	윤미라
강백현	뒤집힌거북이	윤영희
강아지	류호정	윤탈근
강평수	리이이미이이	이경일
개미	바르샤메시	이릉
갱찰청장	박순제	이승태

이원재

이재웅

이현숙

임승재

임승재

스

잘살자

저씨_

저씨_

젤리삐

조국

조정관

종합인

주인공

주현

준여니

천등

청풍

최민지

최은영

칼봇

쿠키몬스터

킹콩우먼

태룡이

태준

토토

파란

포송이

필립

핑크

한국능률협회호남본부

함초샘

항상같은

해피한사람

허윤서

황병희

황충

황현숙

힘내임마

희망리포트 [2016-0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사업결과보고서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6년 5월 9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03008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